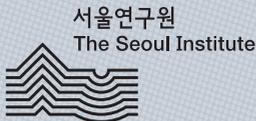


2014-CR-08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4-07

## 골목길에서의 외부활동과 사회적 관계 : 골목화단과 골목주차

윤서연



2014-CR-08

골목길에서의 외부활동과 사회적 관계 :  
골목화단과 골목주차

## 연구진

연구책임	윤서연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 협동과정 박사수료
연구원	배선혜	서울대 대학원 도시설계 협동과정 박사수료
	배영욱	서울대 대학원 도시설계 협동과정 박사수료
	채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 협동과정 박사수료

이 보고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서울연구원 및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차례

<b>I</b>	<b>연구의 개요</b>	<b>10</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1	연구의 배경	10
1 2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2 1	연구의 내용	12
2 2	연구의 방법	12
<b>II</b>	<b>골목경관변화에 따른 외부활동의 변화 특성</b>	<b>16</b>
1	서론	16
1 1	연구 배경	16
1 2	연구 목적	17
1 3	연구 방법	17
1 4	연구 범위	18
2	주택지 골목 경관의 해석을 위한 접근	21
2 1	문화경관의 해석	21
2 2	외부활동에 대한 분석	22
3	경관분석을 위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24
3 1	서울의 인구 급증과 도시화	24
3 2	사회적 배경 및 정책 방향	26
3 3	물리적 환경_infra :도로,포장/ 상하수도/ 주차	27
3 4	생활과 경제여건의 변화 :가전제품, 유치원, 문화시설	30
4	문헌 속에 나오는 골목의 경관	32

4 1	조선시대 골목_ 구조와 활동 :	32
4 2	개화기의 골목	35
4 3	1930~40년 골목	40
4 4	1950~60년 골목	43
4 5	1970~1980년 골목	47
4 6	1990~2000년 골목	50
5	각 시대별 골목에서의 외부활동	53
6	결론	55
6 1	각 시대별 골목 활동의 해석	55
6 2	서구의 외부활동변화와 한국의 골목활동 변화의 비교	58
<b>III</b>	<b>골목 구멍가게의 쇠락 과정 - 해방촌을 중심으로</b>	<b>62</b>
1	머리말	62
1 1	동네 구멍가게 접근 방식의 한계	62
1 2	연구의 목적	64
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4
2	근린단위에서의 영세 소매업의 역할	67
2 1	경제적인 측면	67
2 2	사회적인 측면	68
2 3	동네 기반 구멍가게의 의미와 역할 찾기	69
3	구멍가게 쇠락 과정	70
3 1	복합 생활 거점으로써의 지위 상실	70
3 2	이용자 변화에 따른 관계변화	73
3 3	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활동의 변화	77
3 4	개발 압력에 취약한 구조	78
4	맺음말	80
4 1	해방촌 구멍가게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장소인가?	81

42	연구의 시사점	83
<b>IV</b>	<b>골목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 서촌을 중심으로</b>	<b>86</b>
1	서론	86
11	연구 배경	86
12	연구 목적	87
13	연구 방법 및 범위	88
2	골목길의 가치와 역할 변화	89
21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89
22	공유공간으로서의 골목길	89
23	골목길에 대한 법·제도적 변화	91
3	서촌 지역에서의 골목의 의미	96
31	서촌 지역의 골목 현황	96
32	활동의 매개체로서의 골목	99
4	공유공간으로서의 골목길 재탐색	103
41	설문개요	103
42	이용자 인식 분석결과	104
5	결론	113
	<b>참고문헌</b>	<b>116</b>

## 표 차례

표 2-1	연구 범위 및 자료	20
표 2-2	조선 시대 골목을 배경으로 한 그림	32
표 2-3	개화기의 골목 전경	35
표 2-4	1930년대 골목의 아이들 놀이	42
표 2-5	1950~60년대 골목의 전경	44
표 2-6	1970~80년대 골목의 전경	48
표 2-7	주거수준변화	49
표 2-8	1990~2000년대 골목의 전경	51
표 2-9	시대별 골목에서의 외부 활동	53
표 3-1	인터뷰 목록	66
표 4-1	골목길 조성 관련 법·제도- 법정계획부분	92
표 4-2	골목길 조성 관련 법·제도- 비법정계획 및 주민참여 프로세스	94
표 4-3	지자체 차원의 골목길 관련 법·제도적 대응 방안	95
표 4-4	설문 항목	103
표 4-5	응답자 특성	104
표 4-6	이용 현황	106
표 4-7	요인분석 결과표	107
표 4-8	요인별 평균값	108
표 4-9	커뮤니티 참여에 따른 의식정도	109
표 4-10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공성에 대한 주체의식	110
표 4-11	관리 활동 현황	111
표 4-12	골목길 공유자원으로서의 활용의사	112
표 4-13	기대효과	112
표 4-14	전체적 만족도	113

# 그림 차례

그림 2-1	사우어의 문화경관 도식	21
그림 2-2	필수활동과 선택적 활동의 주요 활동의 종류들	23
그림 2-3	1880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공공공간에서의 옥외활동 변화 분석 다이어그램	24
그림 2-4	서울시 인구증가 추이	25
그림 2-5	서울시 미포장 도로 비율	28
그림 2-6	상수도(좌) 및 하수도(우) 보급률	30
그림 2-7	차량 등록	31
그림 2-8	십만명당 무연탄 소비량	31
그림 2-9	유치원 추이	31
그림 2-10	공연장 수 추이	31
그림 2-11	1920년 주택의 마당	54
그림 2-11	시대별 골목 활동의 해석	58
그림 2-12	시대별 양갓의 외부활동 변화	58
그림 3-1	현장 관찰 및 심층 인터뷰 대상 가게의 위치	67
그림 3-2	동네 입구의 가게 겸 복덕방	70
그림 3-3	과일, 잡화, 문방구를 겸하고 있는 가게	70
그림 3-4	주거공간으로 대체된 이전 가게의 흔적	71
그림 3-5	이전 가게의 변화를 알려주는 간판	71
그림 3-6	취급 물품 감소로 인한 빈 진열장	73
그림 3-7	가게 내부 감시를 위해 설치한 cctv와 거울(사례2)	75
그림 3-8	가게 주인 소유의 건물	80
그림 3-9	특정 구성원들만의 공공장소	83
그림 4-1	연구의 공간적 범위	88

그림 4-2	서촌 지역의 과거 도시조직	96
그림 4-3	체부동 골목	96
그림 4-3	골목을 점유하는 주차 차량 (체부동)	97
그림 4-4	골목경관의 변화	97
그림 4-5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주거지 골목(통인동, 필운동)	98
그림 4-6	서촌내 옛골목과 근생시설의 분포	99
그림 4-7	연구회의 골목청소 전경	100
그림 4-8	연구회의 골목텃밭 조성 현황	100
그림 4-9	한옥골목 답사·전시 등의 프로그램	101
그림 4-10	한옥 담장위 조형전시	101
그림 4-11	필운대로에서 진행되는 마을축제	101
그림 4-12	통인시장 앞 정자 ‘시장해’ 프로젝트	101
그림 4-13	동네 탐방객	102
그림 4-14	종로구 탐방 루트	102

#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연구의 배경

- 골목길에 대한 관심 확대

매체를 통해 마주하는 동네와 골목은 그리운 풍경을 가지고 있다. 걸어 다니면서 마주치는 고즈넉하니 예쁜 풍경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그리움일수도, 혹은, 현실에서의 우리 동네와 골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최근의 ‘골목문화’ 열풍은 어떠한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문·사회·건축·도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골목길의 의미, 골목길 문화와 장소성, 골목길 공동체 문화와 사회적 기능 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골목길 담론이 형성되면서, 골목길 보존과 골목문화 활성화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골목길의 문화적 풍경에 집중된 관심은 실제로 골목길을 매일 마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중요성, 주거지로서의 가치 향상 논의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과거의 골목과 현재의 골목

그러나 앞선 골목열풍과 달리, 오늘날의 골목은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와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외부활동이 실종되고, 통과와 생활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로의 기능만이 수행되고 있거나, 이마저도 개인차량들이 주차장을 위해 점유하는 것이 당연시되기도 한다.

주거지 골목을 일상생활공간으로 본다면, 이러한 일상생활공간에 누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는 주차를 당연시 여기는 주

민일수도, 골목을 내 집처럼 청소하는 주민일수도, 물건을 내어다 놓고 파는 가게주인일수도, 골목을 지나는 다수의 탐방객일수도 있지 않을까? 어떠한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공간의 성격을 규정짓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다양한 주체들의 실천행위가 결합되면 만들어진다. 법적으로 골목은 공공이 조성하는 공적공간이지만, 일상생활공간으로서 골목길은 그 영역을 같이 공유하는 상이한 개인들이 어떻게 상호주체성을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 우리 시대의 골목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골목에 대한 기대  
이 연구는 ‘오늘날 골목은 왜 계획가나 연구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상생활의 장으로써의 역할은 커녕, 사람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차량만이 주차되어 있는 그냥 그런 공간이 되고 있는가?’, ‘골목길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어디서 시작되고, 골목길 문화는 마냥 노스텔지어와 이상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우리 주변의 가까운 도시 공간 ‘골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골목길이라는 공공공간이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공이 조성하지만, 같이 사용하는) 단순히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임에 주목하여, 현재의 골목 공간이 가지는 물리적·사회적 성격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시대마다 ‘일상생활’의 공간으로서 골목에서 행해졌던 외부활동이 무엇이며 현재에 이르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해보고, 실제로 동네 두 곳(해방촌, 서촌)을 구체적 사례로 삼아 골목의 주요활동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골목길’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골목경관의 재구성을 통한 외부활동의 변화, 해방촌의 골목 구멍가게의 쇠락과정, 서촌에서의 골목활동과 공유공간으로서의 가능성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 연구의 방법

- 골목경관변화에 따른 외부활동의 변화 특성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공간 및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구상회화나 기록 사진, 영화자료 등의 시각자료와 생활상의 변화 뿐 아니라 골목에서 벌어지는 사람의 활동을 설명하는 각 시대의 기행문과 소설, 신문 기사 등의 문헌 자료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원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시대별 조시경관 조망, 골목의 물리적 공간구성, 공간속에서의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활동모습을 찾아내고자 한다.
- 골목 구멍가게의 쇠락과정 - 해방촌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연구에 적합한 질적연구방법론 중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관찰과 기록을 통해 동네에서의 커뮤니티가 가게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와 주민면접을 통해 그 가게들의 공간적 환경특성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골목활동과 공유공간으로서의 가능성-서촌을 중심으로  
이론 및 선행연구, 관련 법·제도 등 문헌연구를 통해 골목의 공간적 개념

구성, 골목길의 조성·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 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촌 지역에서의 골목길 현황을 골목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 발생의 측면에서의 관찰조사와 지역 주민들의 골목길 이용과 공유공간으로서의 인식 측면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골목경관변화에 따른 외부활동의 변화 특성

- 1 서론
- 2 주택지 골목 경관의 해석을 위한 접근
- 3 경관분석을 위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 4 문헌 속에 나오는 골목의 경관
- 5 각 시대별 골목에서의 외부활동
- 6 결론

## II 골목경관변화에 따른 외부활동의 변화 특성

### 1 서론

#### 1.1 연구 배경

- 기능을 상실한 골목길, 되살릴 골목문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최근 골목문화 열풍이라 불릴 만큼 골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는 2000년대 이후에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골목길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고, 골목길 문화와 장소성, 골목길 공동체 문화와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며(황익주, 2005; 김홍중, 2008) 골목길의 보존과 일상 생활의 장(장태현·박종덕, 2001; 정재용·박훈, 2006)으로서 골목공간의 복원 및 골목문화의 활성화를 주장한 학계의 논의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주택가의 골목은 차들만이 들어찬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우선하고 있으며, 그나마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골목들은 화려한 벽화들로 채색되고, 낯선 이들의 방문과 행사들로 예전과는 다른 활기를 띄기도 한다. 이렇게 문화적 풍경에 집중된 골목에 대한 관심은 실제 골목길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골목 사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시켜, 결국 현실에서 주민과의 갈등과 외면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밖으로 나온 차량들이나 일상생활이 아닌 이벤트로서의 문화 활동이 골목문화를 살리는 보편적인 골목정비의 방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릴 골목에서의 외부활동이란 어떤 모습이며 골목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대마다 ‘일상생활’이란 이름으로 통칭되어 골목에서 행해졌던 외부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활

동들이 왜 골목에서 행해질 수 밖에 없었는지, 혹은 왜 행해지지 못했는지, 또 그 활동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밝힘으로써 오늘날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되살릴 골목의 기능과 골목문화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도시화, 근대화 등의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온 골목공간간의 물리적 환경과 골목에서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각 시기의 골목 경관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각 시기마다 골목과 공간을 채웠을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또 각 시대별 골목에서의 활동을 안겔(2003)의 외부활동의 필수·선택·사회적 활동 분류 다이어그램에 적용하여 한국 골목의 외부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이를 통해 현대 골목에서 요구되고 있는 역할과 활용방법이 무엇일지 경향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13 연구 방법

- 문화경관분석을 통한 각 시대별 골목경관 재구성  
피어스 루이스(1976)는 「경관해석의 기본 원리」라는 그의 저서에서 ‘경관은 인간 활동의 결과이고 이를 거꾸로 추적하면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따라서 특정 시기에 경관이 대폭 바뀌었다면 그 시기에 큰 문화적 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sup> 이 연구에서는 구상회화나 기록 사진, 영화자료 등의 시각 자료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공간과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경관 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록물 속 골목길에 나타난 골목의 물리적 공간 구성과 그 공간 속에서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활동

---

1 이정만, 2012, 「지리학 탐색」, 한울아카데미

모습을 살핀다. 또한 시각적 자료에 나타나는 물리적 공간의 형태를 뒷받침하는 관련법과 생활상의 변화 요인뿐 아니라, 골목에서 벌어지는 사람의 활동을 설명하는 각 시대의 기행문과 소설, 신문 기사 등의 문헌 자료들을 통해 도시경관의 객관적인 조망과 경관을 구성하는 도시민의 생활과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

○ 각 시대별 골목에서의 활동에 관한 연구

각 시대마다 골목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의 특성과 경향을 해석하기 위해서 도시의 공공공간과 거리 위의 생활과 활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제인 제이콥스(1961)와 그 계보를 잇는 안젤(1971), 윌리엄 화이트(1980)의 연구방법을 차용한다. 이들 연구는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행태에 대한 관찰과 기록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공통점이 있으나 제인 제이콥스가 그녀 주변의 평범한 풍경과 사건들을 가까이서 관찰하여 그 지역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의 흐름, 그들의 네트워크, 삶의 터전, 생활방식 등 도시 작동에 관한 종합적인 원리를 도출하였다면, 안젤은 옥외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을 3가지로 객관적으로 분류하여 각 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의 요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윌리엄 화이트는 뉴욕의 보행자가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행태를 녹화,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분석하는 연구인 “Street Life Project”를 진행하면서 경관 속 사용자의 행태 분석의 방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 연구 범위

시각자료에 나타난 도시민의 일상생활은 복식, 주거양식, 이동 수단 등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여성상, 직업군, 사회계층분화 등 경제와 사회상에 이르기까지 그 주체와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정희선,

2010).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도시 주거지 앞의 골목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농가 주택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도시화에 따라 생겨난 도시주거 형태인 도시한옥에 의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준공공적 성격의 도시공간인 골목(임창복, 1991)이 등장한 1920~30년대를 주요 기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시기 전인 조선 후기 골목의 경관부터 오늘날의 골목경관을 조명하기로 한다.

## 141 공간적 범위

### ○ 도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시는 농촌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인구집중으로 인해 비교적 도시인구 및 인구밀도가 높아 인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활동 무대가 되는 장소이자 집중에 의한 제반의 도시 문제가 야기되는 장으로서의 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 후기(17~18세기) 물자의 증가와 유통, 급속한 인구증가로 주택, 위생, 화재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오늘날의 서울지역으로 연구 지역을 한정한다. 또한 각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지 골목 경관을 지닌 지역인 도성 안(조선시대), 돈암동 등(일제시대), 불광동 국민 주택촌, 해방촌의 판자촌 등(1950~60년대), 중림동 등(1970~80년대), 사당동(1990~2000년대)의 골목 경관을 탐색한다.

### ○ 주거지 앞의 골목

골목길의 사전적인 의미는 ‘좁은 길’로 도시가로 구조 속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가로이며, 전통적인 주거지역을 구성하는 핵심공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사를 하고 정보를 나누며 생업을 하는 공간으로의 넓은 길이 아닌 대문이 이웃하고 마주하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며 동네의 가장 작은 단위의 골목길(박소영, 2004)을 연구한다. 이때 골목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좁은 길(예 : 피맛길)이 아닌 사적인 주거공간과 외부공간이 만나

는 접경의 공간으로 조선, 일제 시대는 반가, 중인 주택의 골목을 중심으로, 50년대 이후는 판자촌을 포함한 영단주택 단지, 단독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차도(차량전용도로)가 없는 이면도로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한정한다.

## 142 시간적 범위

조선 후기, 개화기(1900년대), 1930년대(일제시대 근대도시 기반시설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로, 준공공간으로의 골목 등장), 1950~60년대(전쟁과 재건기간 동안의 빈민촌과 재건촌), 1970~80년대(고속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도로의 양적 확대), 1990~2000년대(신자유주의 경제로 본격적인 차량 보급)로 시간적 범위를 구분하여 연구한다.

표 2-1 연구 범위 및 자료

	조선 후기	개화/일제시대	50~60년대	70~80년대	90~2000년대
연구지역	도성 안	돈암동, 불광동 등	해방촌 등	종림동 등	사당동 등
시각자료	서화, 고지도	영화, 사진	사진, 영화	사진, 영화	사진, 영화
문헌자료	조선왕조실록	기행문, 신문, 소설, 연구자료	기행문, 신문, 소설, 연구자료	기행문, 신문, 소설, 구자료	기행문, 신문, 소설, 연구자료
관련법규		취제 규칙	도로, 주차장법, 상하수도관련 법규, 주택정책 등		

## 143 내용적 범위

- 시기별 골목의 물리적 환경 재구성, 이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제도적 근거와 생활방식
- 시기별 골목에서 행해진 활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힘
- 시기별 골목에서 행해진 외부활동과 기능을 파악하고 공간의 의미를 해석함

## 주택지 골목 경관의 해석을 위한 접근

### 문화경관의 해석

#### 칼 사우어의 문화경관

칼 사우어의 문화경관 연구의 핵심은 요소를 기록하고 분류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지역 문화의 형성과 변화 과정과 함께 밝히는데 있다(이정만, 1993: 71~83). 이는 인간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환경을 변형시켜 왔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요소와 틀을 제공하고 있다. 경관은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과거의 경관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형성될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이 사회조건, 자연조건, 즉 과거 사람들이 살던 때의 문화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경관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정만, 1993: 71~83; 이정만, 2012: 335~340). 이 논점은 과거의 경관을 재구성하기 위해 수집되어야 하는 기초자료의 종류, 분석 항목과 해석의 흐름의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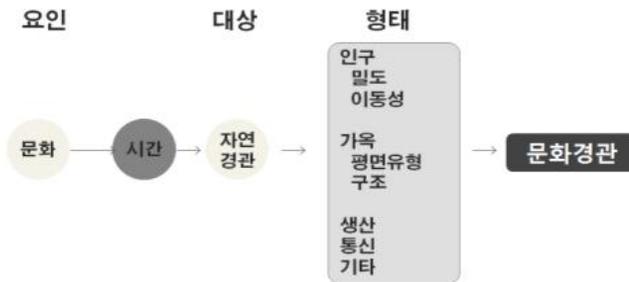


그림 2-1 사우어의 문화경관 도식

출처 : 한국지리연구회, 1993,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p76

#### 경관 분석 틀

신용재와 김종인은 1990년 연구에서 골목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물리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 측면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커뮤니티 속성, 형태적 속성, 장치물 및 생활 속성들로 나누어 이해하는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 틀을 각색하여 골목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시각 자료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 2.2 외부활동에 대한 분석

### 2.2.1 옥외 외부 활동<sup>2</sup>

옥외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필수적 활동이다. 필수적 활동은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활동으로 학교나 직장에 가는 일, 쇼핑을 하는 일 등과 같이 일상의 직무나 소일거리들이 속한다. 다른 활동들과 비교하여 걷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활동 범위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영향이 미약한 편이다. 두 번째는 선택적 활동이다. 선택적 활동은 사람들이 원하고, 시간과 장소가 허락하는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전혀 다른 활동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걷거나 잠시 앉아 햇볕을 쬐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선택적 활동은 외부의 물리적 조건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활동이다. 사회적 활동은 여러 종류의 집단 활동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나 인사와 대화를 포함하며 옥외공간의 질이 양호할 때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공간의 질과 옥외활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옥외공간의 질이 양호하면 선택적 활동의 발생률이 상승한다. 또 선택적 활동의 수준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활동의 양도 증가한다. 즉, 옥외공간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 그 장소와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이다.

---

2 안젤(김진우 역), 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푸른솔. pp 17~2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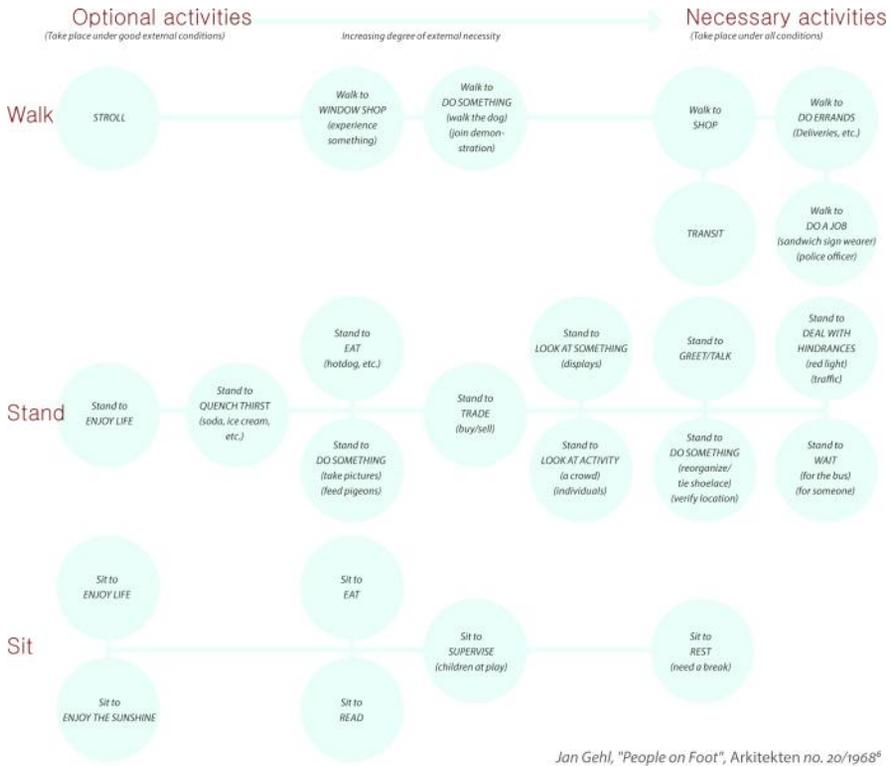


그림 2-2 필수활동과 선택적 활동의 주요 활동의 종류들

출처 : Jan Gehl & Birgitte, 2014, *How to Study Public Life*, Island Press, p 16

## 2 2 2 시대적 경관 속의 외부 활동 분석과 변화

양겔은 1880년부터 2005년까지 코펜하겐에서 이루어지는 옥외활동 종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외부 공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환경과 활동을 연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20세기 초에는 공공장소에서 옥외공간의 질과 관련 없는 필수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차량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이전의 시점으로 대부분 보행을 기반으로 한 이동과 필수 활동이 주를 이루었던 환경이기 때문이다. 20세기를 거치면서 자유로운 이동과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게 되었

다. 도시공간을 차가 점령하게 되면서부터 필수 활동 또한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공공공간에 대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도시공간은 점차 다양한 여가와 레저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적인 선택활동뿐만 아니라 동적인 선택활동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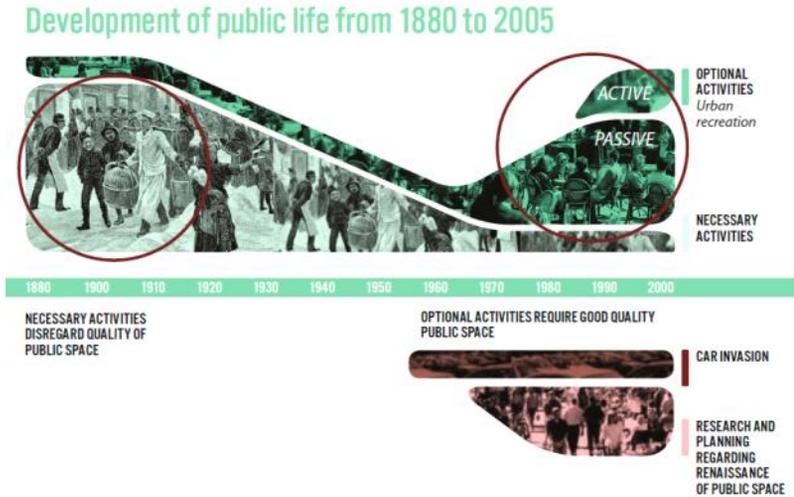


그림 2-3 1880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공공공간에서의 옥외활동 변화 분석 다이어그램  
출처 : Jan Gehl & Birgitte, 2014, *How to Study Public Life*, Island Press, p 147

### 3 경관분석을 위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 3.1 서울의 인구 급증과 도시화

조선 인조 26년(1648)에 10만여 명(95,569명)이었던 한양의 인구는 18세기에 이르러 24만 명에 이르러 2배로 그 인구가 증가한다. 그 이후 200여년 동안 20만 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한 한양의 인구는 일제 강점기에 외국인(일본인, 중국인, 구미인 등)의 거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1910년 238,499명(한국인)에서 1943년에는 908,241명으로 증가

하였고, 외국인을 합한 전체 인구는 1,078,178명으로 100만 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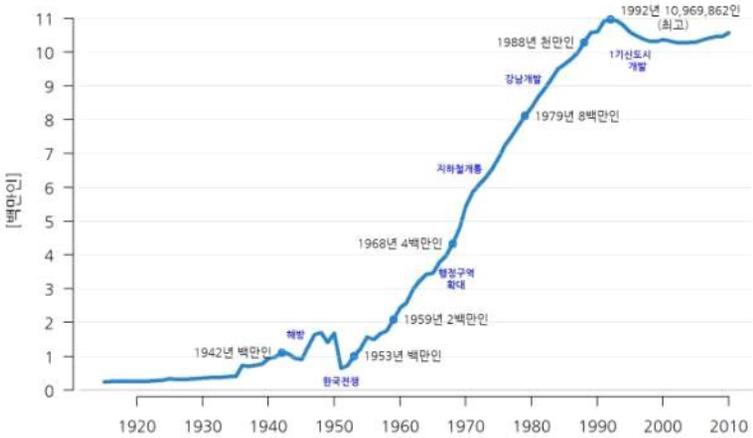


그림 2-4 서울시 인구증가 추이

출처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보는 서울 변천(2010년 개정판)」

1945년 광복 당시의 인구는 90만 명이었던 인구수는 외국에서의 귀국, 한반도 북부지역 출신의 월남 등으로 1948년에는 인구 171만 명으로 3년 동안에 배에 가깝게 급증한다. 이후 한국 전쟁으로 인구가 65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1953년에 휴전과 환도로 다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55년에는 157만 명, 1960년에는 245만 명(전체 인구의 10%), 1970년에는 543만 명, 1980년에는 836만 명, 1990년에는 1,061만 명으로 1,000만의 대도시가 된다, 끝없이 증가하던 서울의 인구는 1992년을 정점으로, 정부의 서울 인구 분산 정책에 의해 다소 줄게 되고 이후 1,000만 명 내외의 인구를 유지하게 된다. 100년 동안 서울은 항상 인구 급증에 따른 주택난, 위생, 교통 등의 도시문제를 겪게 된다.

조선시대는 유교 질서가 엄격한 신분사회인 동시에 남녀의 내외법도 철저하게 지켜졌다. 따라서 여성의 외부 활동에는 엄격한 제약이 있었으며, 비교적 제약이 덜했던 서민계급의 여성도 대낮의 거리에서 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한양 도성 내는 민간인의 토지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관공서의 부지를 제외하고, 유흥지에 한해서만 대어를 했으며, 그 대어 기준은 대군공주 : 2,704평, 왕자옹주 : 2,256평, 1~2품 : 1,340평, 3~4품 : 900평, 5~6품 : 718평, 7품 이하 : 361평, 서민 : 279평<sup>3</sup>으로 차등을 두었다. 즉 이때 한양의 주택사정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민들도 마당을 온전히 지닌 주택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골목은 1.2m 내외의 좁은 통로로 이마저도 측구(側溝) 2척(尺)을 두도록 했다. 이후 일제 시대에 경성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대형필지의 주택은 토지분할로 밀도를 높이고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도심부 주변지역을 신시가지로 개발하여 도심형 한옥을 양산하게 된다. 개화기와 일제시대에 상하수도, 도로정비 등의 기반시설이 도입되는 근대적 도시계획이 실행되었으나, 신시가지나 일본인 거주지 중심으로 진행되어 기존 주택지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한국 전쟁 이후에 상당부분 훼손된다. 해방 이후 해외 및 이북으로부터의 귀환자 및 전국 각 지방으로부터의 이농민들로 인구가 급증하여 심각한 주택난을 겪으며 판잣집·가건물·토막집 등 무허가건물을 양산하게 된다. 6·25전쟁 이후 도시의 정비를 위해 이러한 건축물들의 철거를 시행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또 다른 무허가주택을 짓도록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시기는 도농격차 문제와 함께 대규모의 도시빈민해결이 국가적 문제가 된다. 이후 차관을 들여 대규모 차관주택과 주택영단을 통한 재건축택 등 기존의 한옥과는 다른 보급형 주택들을 다량으로 공급하게 된다. 그러

3 서울특별시, 1965, 「서울시도시계획서」.

나 이 주택들은 10평 내외의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간이주택과 같은 형태의 주택들이었다. 그러나 서울로 계속해서 집중되는 인구급증은 여전히 심각한 주택난을 야기하고 이를 위해 강남개발과 더불어 판자촌과 같은 불량주거지를 철거하는 대대적인 재개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60년대 말 서울의 판잣집은 기어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도심·외곽 할 것 없이 들어찬 판자촌은 한 마디로 서울의 행정을 마비시킬 정도였으니까요. 내 발상은 간단했습니다. 쓰러질 듯 누워 있는 판잣집을 번듯하게 일으켜 세우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아파트지요. 당시에는 서대문 금화지구 7만 채를 포함, 서울시 1백만 평 땅에 14만 5천채의 판잣집이 널려 있었습니다.”

김현옥, 1994년경 월간중앙 허의도와의 인터뷰  
(출처 : 강준만, 2002,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인물과사상사)

### 33 물리적 환경(인프라): 도로,포장/ 상하수도/ 주차

#### 331 도로와 도로포장

근대적 개념의 도로정비는 1882년에 김옥균의 치도론, 치도약칙으로 시작된다. 이 도로를 관리하는 규칙은 오물처리법, 도로정비 감독하는 순검설치, 매시장을 길거리가 아닌 성 부근 혹은 동리의 빈터에 설치, 벽돌사용, 방화대책으로 가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혼시의 성격을 지닐 뿐이었다.

1895년 도로수치와 가가지지 관허하는 건(미실시)에 대한 지침 역시, 도로 위의 건설물 및 장애물, 도로 침범, 도로, 교량, 구거, 오수에 관한 사항, 도로 청소 및 제설에 관한 사항, 변소 구조 및 시노 급취 운반에 관한 사항 등 도시기반 시설 및 변소시설, 오물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1896년 한성내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건에 의해서 한성의 주요도로(남대문~종로)의 폭 50~80척인 것을 55척(약 12M)로 규정하고 가가 건조를 허가한다. 가가의 높이는 전면 9척(약 2M)으로 통일하고 이를 10년 기한

으로 관허한다.

1895~1897년 도로 정비사업에 의해 종로, 소공로, 서소문이 개수된다.<sup>4</sup> 1960년대만 하더라도 특히 전반기에는 도로의 신설·확장공사보다 도로포장공사의 비중이 더 컸다. 특히 뒷골목 포장에 관한 서울시 최초의 장기계획으로 1965년에 수립된 「시정10개년계획」 도로포장 항목에 보면 뒷골목 즉 세도로(細道路) 포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간선도로는 대부분 포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세도로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포장된 곳이 많아 도로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시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여 명랑한 서울거리가 되도록 사업비 9억 7,380만원을 투자하여 9,200a의 세도로 포장을 10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집행한다. 그러나 본 세도로 포장에 있어서는 간선도로에 있어서와 같이 대중교통상 차량의 소통수단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통행을 편리케 하고 토지사용도를 높이는 한편 위생 및 환경의 미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점이 현저하다는 점에서 시민반부담 포장공사가 가능하므로 공사비 중 약 10%인 840a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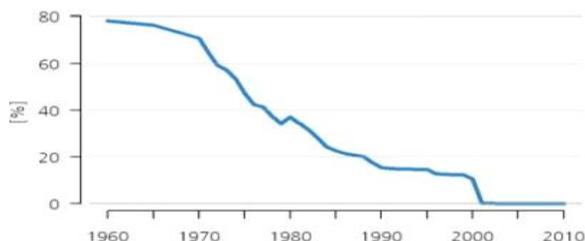


그림 2-5 서울시 미포장 도로 비율

출처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보는 서울 변천(2010년 개정판)」.

4 이정옥, 2011, “갑오개혁 이후 한성 도로정비사업과 府民의 반응”, 「향토 서울」, 제79호.

5 「서울육백년사」, “1960년대의 도로포장”  
(<http://seoul600.seoul.go.kr/seoul-history/sidaesa/txt/8-6-3-2-2-2.html>)

## 상하수도 관련 제도

인간의 생활에서 물의 사용은 취락의 입지를 결정하고 문명을 발생하며,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인구집중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증가한 생활용수와 오물로 인해 물 및 환경의 오염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908년 9월1일 한양주민 15,000명에게 급수를 시작하며 상수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전쟁 그리고 이후 복구기인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국민은 우물, 계곡, 하천의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였고(1961년 상수도 보급률 전국 17.1%), 인구의 도시집중 시기에는 급수시설 부족 및 급수난이 어김없이 발생하였다. 서울의 경우 한국전쟁 전 상수도 보급률이 70%를 넘었으나 전쟁 직후 56.8%로 급감하였고 이는 1961년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따라서 가옥은 물이 흐르는 개천을 따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가 되었고, 공동 마을 우물이나 빨래터 등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물 길어오는 것이나 빨래하러 가는 것이 아이나 아녀자들의 주요 일과였으며 물장수와 같은 직업군이 골목을 드나들 수밖에 없었다.

1961년 수도법을 최초로 제정하고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부터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상수도 시설의 양적 확충 정책을 시행한 결과 1968년에는 서울시 상수도 보급률이 80%를 넘었다.<sup>6</sup> 그러나 이와중에도 변두리지역 및 고지대의 용수 공급 불안정과 가뭄 시 제한급수 등 안정적 용수 체계가 미흡하여 여전히 물장수들이 돌아다녔으며 지역마다 돌아다니는 급수차와 지붕마다 물을 받아놓는 물탱크들을 볼 수 있었다.

반면 하수도는 197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보급률이 50%에 이르고 80년대 중반이 되어야 보급률은 90%에 이르게 된다.

6 김광중, 2003, 「지표로 본 서울변천」, 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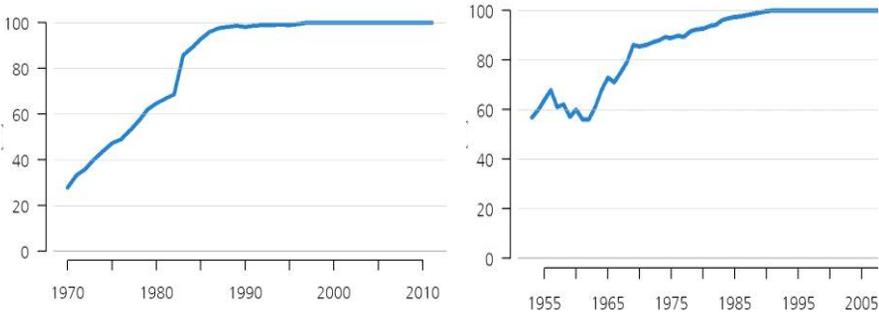


그림 2-6 상수도(좌) 및 하수도(우) 보급률

출처 :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보는 서울 변천(2010년 개정판)」.

### 3.4 생활과 경제여건의 변화 : 가전제품, 유치원, 문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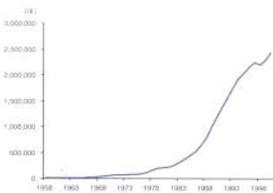
우리생활에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활편의기기가 보급되는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 금성사가 라디오,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이나, 이 가전기기들이 본격적으로 일반가정에 보급되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 소득이 증가하면서부터이다.

TV의 경우, 1966년 TV방송이 시작되었으나 이때만 해도 소득수준이 낮아 TV보급률은 15.7%(1969년)에 그쳤다. TV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보급이 증가하여, 1987년도에는 모든 가정이 1대 이상의 TV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컴퓨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은 1970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보편적인 가전기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세탁기, 냉장고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거의 모든 가정이 이 가전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냉장고의 경우 김치냉장고의 보급으로 2가구 중 1가구가 2대 이상의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컴퓨터의 경우 90년대에 들어서야 조금씩 보급되다가 90년대 중반 윈도우95, PC통신의 시작 등으로 본격적인 개인용 컴퓨터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1997년 38% 보급에 그쳤던 것이 2000년

에 84%로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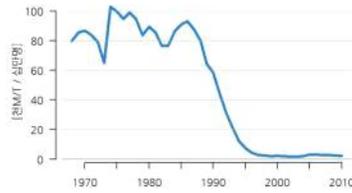
TV에 이은 컴퓨터의 보급은 집에서의 여가활동의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세탁기, 냉장고 등의 보급은 주부를 가사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했으며,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나아가 맞벌이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가전제품과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운 것은 유치원의 확대라 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 중상류층의 사치교육으로 여겨졌던 유치원은 1980년 전반기에 4배에 가깝게 폭증하게 된다. 이는 유치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주부활동의 증가로 낮 시간에 아이를 돌보아 주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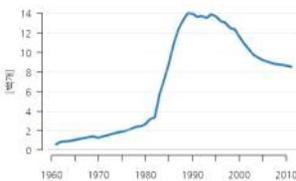
**그림 2-7 차량 등록**

1990년 이후 차량등록대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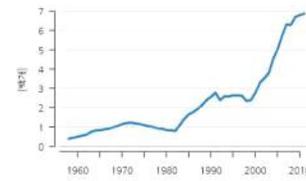
**그림 2-8 심만명당 무연탄 소비량**

1980년 후반 연탄사용량은 급속히 감소한다



**그림 2-9 유치원 추이**

1980년대 이후 유치원 수가 급속히 증가



**그림 2-10 공연장 수 추이**

1980년대 후반 증가하던 공연장은 2000년대에 이르러 급속히 증가

7 김광중, 2003, 「지표로 본 서울변천」, 자료 재구성, p48

## 4 문헌 속에 나오는 골목의 경관

### 4.1 조선시대 골목 : 구조와 활동

표 2-2 조선 시대 골목을 배경으로 한 그림

1 월야밀회 <sup>8</sup>	3 야금모행 <sup>9</sup>	5 풍속8곡병 취중송사 <sup>10</sup>	6 행려풍속도 <sup>11</sup>
			
2 유곽쟁웅 <sup>12</sup>	4 처네 쓴 여인 <sup>13</sup>	7 경기감영도 <sup>14</sup>	
			

#### 4.1.1 조선 후기 골목의 물리적 재구성

18세기 후반의 한양의 골목은 1.2m~2m 정도의 좁은 골목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며, 기와를 엮은 반가의 골목은 담으로 집의 경계를 세우거나 부속실(광, 마굿간 등)로 경계를 만든다. 큰길, 저자거리에 가까이 위치한 초가집이나 상업기능을 복합한 기생의 집의 경우 살림채가 바로 주택의

8 신윤복, <월야밀회(夜夜密會)>, 혜원풍속도첩(蕙園風俗圖帖) 중에서,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 소장  
 9 신윤복, <야금모행(夜禁冒行)>, 혜원풍속도첩(蕙園風俗圖帖) 중에서,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 소장  
 10 김홍도, <행려풍속도 제1폭 취중송사>, 行旅風俗圖 醉中訟事 중 배경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1 김득신, <행려풍속도병 중 7면 겨울채비>, 行旅風俗圖屏 중 7면, 호암미술관 소장  
 12 신윤복, <유곽쟁웅(遊廓爭雄)>, 혜원풍속도첩(蕙園風俗圖帖) 중에서,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 소장  
 13 신윤복, <처네 쓴 여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4 작자미상, <경기감영도>, 호암미술관 소장

경계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골목을 향해 작은 창을 내는 정도로 주택의 구조가 골목을 향한 개방적 구조라고 할 수 없다. 조선은 개국 이래 한양으로 도읍을 확정된 태종 이후부터 길의 너비와 길가의 배수로 관리를 정하게 하였으나<sup>15</sup> 남아 있는 회화에서 배수로의 흔적을 따로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단 조선의 실학자 유형원이 「반계수록」에 주막촌을 구성할 때 길의 폭을 18보로 하고 도로의 양쪽에 넓이 2보의 도랑을 파도록 한 것을 보아 일반적인 길의 구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12 풍속화 속 골목에서의 활동

조선시대 풍속화 속에서 저잣거리가 아닌 주거지 골목에서 서민들의 생활상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이는 골목이 묘사하기에 흥미로운 공간이 아니었거나, 실제로 일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신윤복의 그림 속에서 골목은 으스스한 곳으로 남의 시선을 피해 만나는 장소로 사용된다. 또한 골목에 주로 등장하는 이들은 남성이거나 기생뿐이며, 여성의 경우 쓰개치마를 쓰고 다니는 모습을 묘사하여 조선시대 일반 여성이 외부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골목이 생활공간으로 활발하게 쓰이지 않은 이유는 김득신의 행려풍속도에서 유추할 수 있다. 17세기 이후 대동법의 실시와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은 조선후기 상업경제를 촉진하였고 한양의 인구를 급격히 증가시켰으나 조선의 주택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실제로 일제시대 초기까지 대체로 1가구 1주택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따라서 반가뿐 아니라 중인, 서민들도 300평 내외의 상당히 큰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일상적인 활동은 주택 내부의 마당에서 주로 이

15 太宗實錄 권30, 태종 15년 8월

1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대하제국시대의 주택사정”  
(<http://seoul600.seoul.go.kr/seoul-history/sidaesa/txt/6-10-1-2-1.html>)

루어지고 있었다. 김득신의 그림에서 여성이 집의 바깥에서 물을 길어 오는 등의 우물터, 빨래터 등과 같은 기반시설과의 관계가 일상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가마니를 짜거나, 닭을 키우는 등의 일상 활동이 모두 마당 내에서 이루어지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취미 활동 역시 집 안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경기감영도의 그림에서는 17세기 이후 한양에서 인구의 급증에 따라 다양한 도시문제와 도시문화가 발현됨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도시형 한옥이라 할 수 있는 살림채로 중정을 둘러싼 ㄱ, ㄴ, ㄷ, ㄹ형의 초가 민가를 볼 수 있으며, 집의 경계로 담을 쓰지 않고 실제 생활공간(행랑채, 부속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인구 밀집에 따라 땅을 최대한 활용한 모습이라 해석할 수 있고, 골목에 면한 채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조그만 고창을 두었다. 가로를 따라 초가든 기와집이든 상관없이 모두 석축과 사고석, 전돌을 사용한 화방벽으로 마감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으며(김선정, 2005), 그 와중에도 여전히 골목 등의 외부공간은 폐쇄된 구조이며, 반면에 주택의 중심인 마당으로 진출입과 시야가 열려 있으며, 기와집의 한옥뿐 아니라 초가집 가운데의 마당에도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묘사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는다.

소나무 밑에서 쉬는 선비들, 잡담 나누는 포졸, 물동이 이고 가는 아낙, 동자 데리고 말 타고 가는 선비, 가위 든 옛장수, 지게 진 인물, 새참지고 가는 아낙, 논두렁을 달려가는 개 등 다양한 생활상을 살펴 볼 수 있으나 이 활동들의 주 무대는 돈의문과 연결된 시장이 형성된 저자거리로 주거지내의 골목이 ‘통과 기능’이외의 일상 활동의 주 무대였다고는 할 수 없다.

조선 17~8세기의 자료와 비교해 개화기의 서울을 설명하는 자료에는 특히 지저분한 길에 대한 묘사와 지적이 많다. 조선시대 전기인 15세기 초 10만여 명이던 한양의 인구는 18세기 들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이때 부터 생겨난 여러 가지 도시문제는 개화기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이후 한

표 2-3 개화기의 골목 전경



17 구한말 서울 남대문로의 모습(1894.11)-건축가 김중영 소장(월간중앙 2007년 7월호)  
 18 작자미상, 전남일, 양세화, 홍형욱 저, <한국주거의 미사사>, 둘째계, P207  
 19 미상, 사진관 골목, 1904, 서울 소공동, <서울역사박물관> 전시 사진  
 20 미상, 길가의 한약방, 1900년대, 「서울, 20세기 : 100년의 사진기록」, p33  
 21 미상, 가마, 1900년대, 「서울, 20세기 : 100년의 사진기록」, p33  
 22 Water-carrier, ca. 1904 Frank and Frances Carpenter Collection (<http://historyinphotos.blogspot.kr/2013/12/vintage-korea.html>)  
 23 엘리자베스 키스, 어느 골목길 풍경, <영국화가 엘리자베스키스의 코리아>, 1920년대

양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자연 급배수와 자연 우오물 처리를 하던 한양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것이었다. 골목의 환경에 대한 부분은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상 깊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외국문물을 접한 개화파 김옥균이 ‘치도약론’을 통해 도로의 정비와 위생의 개선책을 내놓기도 한다. 이후 박정양에 의해 1895년 ‘도로수치와 假家기지를 관허하는 건’과 ‘한성내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건’에 의해 종로와 소공로가 개수되기는 하나 여전히 대부분의 서울의 골목은 불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 꼬불꼬불 길, 연기로 가득찬 골목, 지계꾼, 개구멍, 어두운길

“꼬불꼬불한 길이 사방으로 어지럽게 나 있었고, 길 좌우로 여기저기 문이 달린 낮은 담이 서 있었으며, 문밖에는 우중충한 낡은 등이 걸려있었다. 도시는 연기 냄새로 짙았는데 신경에 거슬리지는 않았으나 숨쉬기가 곤란했다. 연기는 집 밑 건물토대 부분에 조그맣게 난 네모난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았는데, 나는 이 구멍들이 우리네 굴뚝 구실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중략) 지계꾼들은 이길 저길 행진을 계속했다. 길에는 사람하나 보이지 않았고, 다만 여기저기서 개들만이 외롭게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중략) 코리아의 대부분의 도시에는 개들이 청소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겨울에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중에서 개들이 먹어 치우지 않은 것이 별로 없다. 코리아 사람들은 개를 좋아한다. 개를 키우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이고 개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대문에는 개구멍이 항상 마련되어 있다.”

“모든 주민은 자기네 집문 앞에 등불을 밝혀 놓아야 한다는 나라에서 제정한 준칙이 있다고 했지만, 이 준칙은 영원한 망각 속에 빠져버린 것이 틀림없다. 어둠이 서울 거리에 찾아들면 거리는 자루 속처럼 깜깜해져 대문에서 한걸음만 가려 해도 밖은 막대 끝에 종이 등을 달고 길을 비추는 종자를 불러와야 했다.”

“담은 가옥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에워싸도록 해서, 담 뒤에서 부자의 고대광실이 서 있는지 아니면 가난뱅이의 초라한 오두막집이 서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영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미로처럼 엉켜있는 골목에서 길을 잃었다. 30분 정도 헤매다가 우연히 큰 길로 나올 수 있었다. 골목들이 서로 비슷하여 분간할 수가 없었다. 사방이 담과 하수도였고 곳곳에 개와 지게꾼이었으며, 연기와 악취뿐이었다. 어떤 곳은 좁기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 소나 말의 달구지를 만나거나 가마가 지나칠 때면 몸을 담에 찰싹 달라 붙어야만 했다.”

1904-1905, 아손 그렙스트  
(김상열 역, 2005,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책과 함께)

○ 좁은 길, 도랑의 묘사

“예법이 2층 건물의 건립을 금하고 있어 약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서울 시민들이 미로와 같은 골목길에 있는 단층집에 살고 있었다. 대부분의 골목길이 집을 실은 두 마리 황소가 지나가기에 어려울 만큼 좁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이 집을 실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이며, 그것도 퀴퀴한 물 웅덩이와 초록색 점액질의 걸쭉한 것들이 고여 있는 수채 도랑으로 더 좁아진다. 수채도랑들은 각 가정에서 버리는 마르고 젖은 다양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더럽고 악취나는 수채도랑은 때가 꼬질꼬질한 만나체의 어린 아이들과 수채의 걸쭉한 점액 속에서 뒹굴다 나온 옴이 오른, 눈이 흐릿한 개들의 즐거운 놀이터이다.”

“저녁 8시경이 되면 종이 울리고 남자들은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며, 여자들은 외출할 수 있다. 새벽이 되면 다시 종ی 울리고 남자들이 거리로 나온다. 내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캄캄한 거리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몸종을 대동한 여인네들만이 길을 메우고 있는 진기한 풍경을 볼 수 있었다.”

1894-1897, I.B. 비숍  
(신복룡 옮김, 2000,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집문당)

○ 악취, 쓰레기 골목 vs 깨끗한 마당

“길 양쪽의 흙벽은 오래되었고 길은 비좁았다. 수채구멍은 덮어 놓지를 앉아서 악취가 났고 쓰레기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집안을 들여다보니 마당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김칫독이 아주 예쁘게 늘어서 있었다.”

(송영달 역, 2006, 「영국화가 엘리자베스키스의 코리아 1920~1940」)

## 개화기 골목의 물리적 재구성

개화기의 골목은 1913년도에 제정되는 “시가지건축취체규칙”에 의해 그 모습과 문제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골목 폭원의 최소 폭, 골목과의 단차, 음용수의 오염문제, 방화벽 설치, 화장실의 설치 원칙 등<sup>24</sup>

### 제3조

3. 건물 및 문호 담벽의 처마끝이나 차일 등을 공공도로 상에 돌출시키지 않을 것.
4. 공공도로에 연한 부지에 건설한 가옥은 도로에 통하기 위하여 최소 폭원 4척(1.2m)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
5. 주가(주거용 건물)의 바닥높이는 지반에서 1척 5촌 이상으로 할 것. 단 사용상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상판을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도로에 면한 건물의 부지는 도로면 이상의 높이로 할 것.
7. 부지내에 적당한 배수설비를 할 것.
8. 음료수용의 정호, 측간(편소), 하수류 또는 대하수구로부터 3간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악수가 삼입되지 않을 장치를 하고 호정측벽의 높이는 2척 5촌 이상으로 할 것.
9. 측간(편소)은 각 주가마다 설치할 것. 다만, 장옥건 가옥(런립주택)으로서 호수에 의하여 적당한 공동측간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조

1. 건물의 지붕은 전조 제11호에 규정한 불연질 재료(금속판 포함)로써 덮어 씌워야 한다.
2. 경찰서장이 부근의 상황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는 그 지정에 따라 방화벽을 설치할 것.
3. 건물은 3층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공공도로에 연한 건물의 처마끝에는 물받침 통을 설치하고 우수는 건통에 의하여 이를 배수할 것.

24

시가지건축취체규칙(1913년, 조선총독부령 제11호)

6. 측간(편소)은 공공도로에 면하여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장병의 류로써 이를 둘러쌀 때에는 제외한다.

422

### 개화기 골목에서의 활동

개화기의 골목길에는 방물장수, 물장수, 나무장수, 두부장수, 지계장수, 통장수, 각설이꾼 등 골목과 집을 드나드는 행상들이 많았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겨난 주택난 때문에 도성 안의 규모가 큰 주택들에 행랑채에는 행랑가족들이 기거하는 셋방이 생겨났다. 전세와 월세 등 셋집의 관행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912년 무렵부터 법으로 이 관행은 보호받게 된다. 마당, 화장실 등을 다른 가족과 공유하기 시작했고 행랑채의 좁은 방에는 평균4~5인<sup>25</sup>의 가족이 모두 모여살게 된다. 자연스레 사람들의 생활은 실내를 나와 텃마루, 마당, 평상 등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러나 도시 한옥의 마당이 여전히 가사노동, 작업 준비, 관상의 기능을 하였고, 단 차이나 대문간의 존재 등으로 골목과 같은 외부에는 폐쇄적인 구조였기에<sup>26</sup>, □자 형태의 도시한옥이나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를 가진 주거지에서 여전히 골목은 생활의 중심공간이 되지 못하고 아이들과 개들의 놀이터이자 각종 행상들이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통로의 기능만을 주로 했다.

반면에 경성의 과밀로 서민 주택에서 담장으로 둘러 쌓인 담장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고, 담 없이 건물이 골목과 한옥의 경계를 대신했다. 이때 이미 서민의 생활 속에서는 생활공간인 마당의 축소로 생활이 거리로 확장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과밀한 실내, 무덥고 습윤한 실내, 여름에는 찜통 같은 부엌 때문에 거리에 내놓은 평상, 텃마루에서 밥 먹고 쉬고, 담배피고, 취사하며, 특히 여성들은 부엌 문간에서 국을 끓이거나 빈대떡

25 4.35인/1가구, 1915년, 「지표로 본 서울 변천(2010년 개정판)」

26 이해경, 2007, “도시적 맥락에서 본 전통한옥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 18, No. 4.

을 부쳤다<sup>27</sup>. 거리는 아이들의 놀이터였으며 급한 용무를 그대로 해결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남자들은 골목에서 투전, 장기를 두었고 여름에 그들은 거리에서 요리하고 잠을 잤다. 밤에 골목길을 지나다닐 때에는 땅에 깎아낸 자리 위에 서로 얹혀 엎드려 있는 몸체들을 넘어가야 했다.<sup>28</sup>

이러한 묘사가 골목길에서는 자주 목격이 되었으나 일반가정집에서는 여전히 유교적 가르침이 철저했던 시기였으므로 성인 여성에서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남녀로 분리된 주거영역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다만 서민집 아이들은 양반에 비해 사회적 규율의 지배를 적게 받았으므로 집 주변에서 또래 놀이와 허드렛일을 거들기 등의 방법으로 삶의 방식을 익혔다(은난순, 2005).

#### 43 1930~40년대 골목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해 기존 시가지의 대형 필지의 한옥들을 필지 분할하여 담이 아닌 행랑채로 경계 지어진 조밀한 마당을 가진 도시형 한옥으로 고밀화하고, 동시에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고 합리적 행정을 피하기 위해 경성부의 관할구역 확장과 함께 대경성부 전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하고 새로 편입된 변두리 미개발지역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전개하여 주거지역 확대를 꾀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돈암, 영등포, 대현, 한남, 용두, 사근, 번대, 청량리, 신당, 공덕 일대에 새로운 중상층 주택지가 조성되었다. 이때 조성된 한옥은 집장사집이라고 불리는 전통한옥과는 달리 토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담을 없애고 건물로서 외부공간을 면하고, 또 연속해서 건립하다보니 독특한 「골목공간」이 생겨났다.<sup>29</sup>

27 G.W. 길모어(신복룡 역), 1999, 「서울풍물지 한말 외국인기록17」, 집문당, p.102

28 H.P. 드레이크(신복룡 역), 1999, 「서울풍물지 한말 외국인기록17」, 집문당, p.111

29 임창복, 1991, “도시형 한옥과 주거문화”, 「대한건축학회지」, Vol.35.

고밀화된 기존 주거지는 사랑채에 세 들어 사는 다른 가족로 인해 거주 환경의 질은 더욱 나빠진다. 그로 인해 외부로 일상 활동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나, 골목의 오배수 배출 시스템이 그동안 개선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인구급증으로 인한 골목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특히 예전에 담으로 이루어진 골목과는 달리, 연통이나 측간(변소)등과 바로 맞닿은 골목은 항상 연기로 자욱하고 오물로 오염되기 쉬웠다.

반면 조선시가지 계획령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가장 먼저 대량 양산된 돈암, 영등포 지구의 도시형 한옥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로체계 및 기반시설 계획 하에 형성된다.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의해 너비 최소 4.0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는 규정과 상하수도 등 20여 가지에 달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규정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기초하여 신시가지는 형성되었다. 이는 기존 성안의 주거지와 유사하게 별도의 담장 없이 공공영역인 길과 개인 영역인 주택의 외벽이 직접 면하도록 한 도시형 한옥으로 채워지지만, 기존 주거지와는 달리 비교적 넓고 쾌적한 환경의 골목을 형성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어 증가한 인구와 본격적으로 보급된 신문물과 활성화된 상공업의 영향으로 더 다양한 신상품과 더 많은 행상들이 골목을 누비게 된다.

“골목길은 온통 장수들의 세상 - 그릇 장수, 건어물 장수, 엿장수, 비단 장수, 칼 장수, 기름 장수, 소반 장수, 냄마 장수, 휴지 장수, 별의별 장수들이 물건 이름을 목청껏 외쳐 댈다. 그릇은 사기 그릇, 양은 그릇, 오지 그릇, 질그릇이다. 모두 지게에다 잔뜩 지고 다닌다. 누가 사자고 하면 지게를 내려놓고 지겟작대기로 버티어 놓는다. 지게는 지겟다리 둘과 지겟작대기 하나, 모두 세 다리로 서는 것이다.”

(어효선, 2011, 「내가 자란 서울 : 1930년대 서울 살림 옛보기」)

여전히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지만, 아동의 수와 놀이는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이는 1920년 이후에 변하게 된 아동관, 즉 미성숙한 어

른이며 노동조차도 아동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겼던 전통적인 아동관에서 미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어린이로 아동관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것’이라는 가족에게 요구된 교육적 역할 변화로 아이들을 가정의 틀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새로운 사회변화를 목격하고 경험한 아이들의 놀이는 더욱 다양해졌다.

“좁은 길에서 아이들이 몰려 놀고, 장수들이 지계를 지고, 수레를 끌고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해서, 자전거 사고가 가끔 있었다. (중략) 남자 아이들은 슬래잡기, 숨바꼭질, 말타기, 땅뺏기, 사방치기, 자치기, 구슬치기를 하고, 계집 아이들은 오라잡기, 줄넘기, 공기놀이를 했다. 이런 북새통에 장수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느닷없이 내닫고 달려들고 하는데, 넘어지고 다치는 것은 변변히 아이들이다. 그렇건만, 장수들은 아이들을 나무라고 욕을 퍼붓는다. 겨울에는, 계집 아이들은 밖에 나와 놀지 않는다. 집에서 소꿉장난을 한다.”

(어효선, 2011, 「내가 자란 서울 : 1930년대 서울 살림 엿보기」)

표 2-4 1930년대 골목의 아이들 놀이

	1 골목에서 노는 아이	2 말타기	3 사방치기	4 새끼줄로 줄넘기
골목마다 몰려 노는 아이들 「내가 자란 서울 : 1930년대 서울 살림 엿보기」 어효선 저 대원사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 공동우물 등의 조합은 거주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 으레들 그러하듯이, 그 골목 안도 한 걸음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획 끼치는 냄새가 코에 아름답지 않았다. 썩은 널쪽으로나마 덮지 않은 시공창에는 사철 똥오줌이 흐르고, 아홉 가구에 도무지 네 개밖에 없는 쓰레기통 속에서는 언제든지 구더기가 들끓었다. 제각기 집 안에 틀을 가지지 못한 이곳 주민들은 그들이 ‘넓은 마당터’라고 부르는 이 골목 안에다 다투어 빨래들을 널었다. 이름은 넓은 마당터라도 고작 여남은 평에 지나지 않는 터전이다. 기둥에서 기둥으로, 처마 끝에서 처마 끝으로, 가로, 세로, 건너 매어진 빨랫줄 위에, 빈틈없이 뻑뻑하게 널려진, 헤어지고 미어지고 이미 빛조차 바랜 빨래들은 십사리도 하늘을 가리고 별에 바람에 그것들이 말라갈 때, 그곳에서도 이상한 냄새는 끊이지 않고 풍기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빨래는 오직 냄새를 풍기고 하늘을 가리고 그럴 뿐이다. 달리 놀이터를 갖지 못한 채, 진종일이 안에서 복적대는 아이들의 옷은 언제든 더러웠다. 더러운 것은 물론 옷뿐이 아니다. 목덜미와 종아리에 때는 몇 겹으로 달라붙고, 핏기없는 그 얼굴에 입술 위로 흘러내리는 콧물이 또 설 사이 없다. 그래도 아이들은 즐거우니 가 없다. 충도 칼도 세발자전거도 가지지 못한 이곳 어린이들은, ‘오오랴아, 이이랴아’며, ‘잇센 도오까아’ ‘열 발에 나가서 여덟 발에 쳐먹기’와, ‘자치기’ ‘찌게공기’…… 그러한 놀이로 날이면 날마다 바쁘다.”

(박태원, 1939, 「골목안」)

#### 4.4 1950~60년 골목

1945년 광복 이후 2배 가까이 급증한 인구조로 서울의 외곽엔 판자촌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된다. 이런 상황은 전쟁 이후에 서울의 가옥과 상수도 등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이후 서울로 돌아온 사람들과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에 더해져 현재주택/필요주택의 비율은 55% 까지 떨어진다.<sup>30</sup> 정부는 미국의 원조로 전재민들을 위한 난민주택으로 부흥주택·재건주택·ICA 주택 등 이른바 공영주택들을 공급하여 1951년과 1956년 사이에 매년 연간 총 건설량의 30~50%에 해당하는 약 100,000호의 주택을

30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CHOSUN\\_TITLE&parmTabId=M\\_01\\_03\\_01#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CHOSUN_TITLE&parmTabId=M_01_03_01#SubCont))

정부가 직접 건설했다.<sup>31</sup>

판잣집이나 보급 주택들은 모두 마당과 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공용화장실과 공동 우물, 혹은 공동 수돗가를 사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주택들이었다.

표 2-5 1950~60년대 골목의 전경

1 1950년대 피난촌<sup>32</sup>



2 57 병퇴기<sup>33</sup>



3 59 불광동 국민주택(평화촌)<sup>34</sup>



4 60 박서방\_해방촌 물장수<sup>35</sup>



5 61서울의 지붕 밑<sup>36</sup>



6 63후암동 하수도공사<sup>37</sup>



7 63 상도동 영단주택<sup>38</sup>



8 60s 연탄 운반하는 삼륜차<sup>39</sup>



9 동네 사람들과 tv시청



31 임서환 외, 「한국 공동주택 생산기술변천사」

32 피난민들의 보금자리 산동네 판자촌, 1950. 8. 4. ©2004 미국 문서기록보관청

○ 6.25 전쟁 이후의 해방촌<sup>40</sup>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흘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추어 오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 곱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 데나 마구 버린 쓰레기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현대 더데이 모양 깔렸다. 저만치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열기설기 문살에 엮어맨 철호네 집방문이 보였다. 철호는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형겅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영성한 문이면서도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를 않았다. 아래가 잔뜩 잡힌 채 비틀어진 문 틈으로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 나왔다. “架子! 가자!”

1950~60년대 판자촌 동네의 한 예인 해방촌의 집의 평면적 구성은 소설 ‘오발탄’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이 골목에서 담이나 마당과 같은 완충 공간·경계 공간 없이 바로 집으로 들어 가는 형태와 영화 ‘오발탄’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나무 널빤지로 담을 만들고 작게나마 작업 공간을 확보한 경우들을 모두 볼 수 있다. 골목의 입체적 구성은 1.2~2m 폭의 너비를 가진 계단이나 비탈길로 이루어져 있다. 포장이 안 된 흙바닥에 구공탄 재 등이 미끄럼방지 등의 목적으로 버려져 있으며 골목의 가장 자리에 각 집의 하수구와 연결된 도랑이 있는 것은 이전시대의 골목 구성과 유사하다. 이 시절의 판자촌은 대부분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공동 우물이나

33 안종철, 1957, 뽕튀기

34 「대한주택공사 20년사」(대한주택공사, 1991)

35 강대진·박서방, 1960, 「화성영화사」, 한국영상자료원

36 이형표, 1961, 서울의 지붕 밑, 신필름.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3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 다시 일어서는 서울

38 「대한주택공사 20년사」(대한주택공사, 1991)

39 Homer Williams, 1968, Yeontan Delivery Truck, Seoul  
(<https://www.flickr.com/photos/34517346@N02/3463999221/>)

40 이범선, 1959, 「오발탄」, p.472.

산에서 흘러 내린 물을 사용했으며, 이를 실어 나르는 물장수나 아이들의 모습을 골목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통금이 있던 시기라 연속적으로 외부활동을 하기는 힘들었지만, 낮에는 열악한 실내에서 활동을 하기 보다는 골목이나 외부로 나와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였고 마당과 담이 없는 골목에서의 그들의 생활은 그대로 노출되고 공유된다. 더욱이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를 사용하는 이들은 서로의 사정에 밝을 수 밖에 없었고, 인근 시장이나 가까운 중심지로 나와서 생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던 이들에게 골목은 구직을 위한 중요한 정보 교류처였다.

해방촌의 경우 가짜 담배 제조나 이후 스웨터 짜기 등의 지역과 근린에 기반한 다양한 가내수공업들이 집의 실내외에서 행해졌고 미군 부대에서 일하기 위한 인적네트워크가 해방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판자촌 외에 정부에서 대량으로 보급한 다양한 이름의 영단주택들은 기존의 한옥과는 전혀 다른 주거공간과 주거 문화를 제공하게 된다. 담이 없는 답장 같은 집이 열과 행을 맞춰 도열되고 마당과 골목의 경계도 불분명했다. 추후 사람들이 그곳에서 각자의 영역을 표시하지만 골목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전이역할을 했던 담의 부재를 대체한 것은 일본식 주거에서 사용되던 현관의 도입이었다.

○ 상도동 영단주택, 똑같은 열,호 주택<sup>41</sup>

“처음으로 이 아리랑고개를 올라선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우거진 넓은 길이 좌우로 갈라져 내려가고, 종로 화신 앞 같은 로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로터리를 해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십자로 길가로는 주택 영단, 똑 같은 형의 특호 주택이 즐비했다.(중략) 이 로터리의 길을 기점으로 주택이 좌우로 줄지어 아득히 보이는 산허리까지 뻗어 있었다. 잔잔한 계곡을 타고 자리 잡은 똑 같은 형의 특호주택, 똑 같은 형의 갑호 주택, 똑 같은 형의 을호주택이 줄줄이 좌우로 마치 전차 기갑사단이 푸른 기를 꽂고 관병식장에 정렬하여

---

41 김광식, 1957, 「213호 주택」

서 있는 감이다.... 이 주택촌을 상도동이라 한다.

삭막한 상도동 버스 종점에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어두워서야 돌아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서성이고 있다. (중략) 갑호주택길을 건너가 제3행 을호 주택길에 들어 묵묵히 걸어갔다. 구멍가게의 불빛을 느끼자 그는 그리로 가서 과자 한봉지를 샀다. 수다스런 구멍가게 할머니는 “석희와 석만이는 귀엽지요. 그애들은 아버지를 잘만나서 과자도 늘 먹구....”(p.51)

길가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뜰 길에 발자국을 내어 놓고,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파내는 것이었다. 그는 곳간 담 밑에 가서 벽돌을 안고 왔다. 벽돌을 수없이 날라 놓고, 그 발자국 구멍에 벽돌 돌썩을 가지런히 놓고 발 디딤길을 만드는 것이다. (중략) 김명학씨는 다시 길가로 나와서 현관 발 디딤돌을 눈을 감고 걸어 가문의 손잡이 부근을 쓸어 보고 문을 드르륵 하고 열어 보는 것이다.” (p.65)

#### 45 1970~1980년 골목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70년대까지 계속되었던 상수도 인프라 건설과 도로포장은 골목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특히 70년대 후반에 90%에 이르는 상수도 보급률에 비하면 하수도의 보급은 1979년도에 이르러도 60%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골목 바닥의 포장 역시 1969년에 26%, 1973년에는 38%에 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서울의 골목은 1970년대에 들어서도 절반 이상은 흙바닥에 하수가 흘러가는 도랑을 그대로 노출한 채였다.<sup>42</sup>

한편 주택 내부의 수세식 화장실은 1977년 9월말 현재 67만 개 중 22만개로 그 보급률은 33%에 그쳤다. 서울시의 부엌, 화장실, 목욕탕시설도 아래 주거수준의 변화를 보면, 1980년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입식 부엌이나 수세식 화장실, 온수목욕탕의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70년대 말에는 아직 주거시설의 근대화가 미진했다.

42

「서울육백년사」, 재구성

<http://seoul600.seoul.go.kr/seoul-history/sidaesa/txt/8-2-4-1-4-9.html>

표 2-6 1970~80년대 골목의 전경

1 1972 이태원<sup>43</sup> : 도로포장, 확폭



2 1972 견지동<sup>44</sup>



3 1972 쓰레기수거인<sup>45</sup>



4 1977 산새마을<sup>46</sup>



5 1977, 무교동 골목<sup>47</sup>



6 1978 경찰관<sup>48</sup>



7 80 공덕동<sup>49</sup>



8 81 산새마을<sup>50</sup>



9 81 산새마을<sup>51</sup>



- 43 Scott Forrey, 1972, 이태원 골목  
 44 견지동, 한정식  
 45 Stan Malcolm, 1972, 쓰레기 수거인  
 46 김동숙, 1977, 산새마을, <http://www.seoulstory.org/story/album/0/1553>  
 47 무교동 골목, 미상, 국립현대미술관소장, 1977  
 48 이두용, 1978, 경찰관, (배경 해방촌)  
 49 김기찬, 1980, 공덕동  
 50 김동숙, 1981, 산새마을, <http://www.seoulstory.org/story/album/0/1553>  
 51 김동숙, 1983, 산새마을, <http://www.seoulstory.org/story/album/0/1553>

표 2-7 주거수준변화

구 분	단위	1980	1985	1990	1995	2000
목욕탕 온수비율	%	1.0	20.0	34.1	75.1	94.1
수세식화장실비율	%	18.4	33.6	51.3	75.0	86.5
입식부엌비율	%	18.2	35.1	52.4	84.5	87.3

자료 : 인구주택센서스 각년도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서울시가 86, 88년도 국가적 행사를 유치하면서 본격적인 도시미화사업을 시행해 나간다. 가로환경(街路環境) 즉 간판·점포·담장·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서울의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움직임이 이미 1970년대 전반기에 본격화되었으며, 주요 간선가로는 물론이고, 뒷골목도 정비대상에 들어 포장·하수도·석축·교량 등도 정비대상이 된다. 이 시절의 자료에는 골목을 정비하는 공무원의 모습, 소독하는 소독차, 골목을 쓰는 주민 등 환경을 정비하는 이들의 모습과 이 공간을 주택의 확장공간처럼 사용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1970~80년대에 활발했던 가내 제조업의 발달은 주택의 지하나 지층을 공장이나 작업장, 창고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게 했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은 집의 내부를 작업장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좁고 열악한 실내 공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기 좋은 골목 공간으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부업을 비롯한 지역에 기반한 여러 활동들은 골목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서 동네사람들과 공동육아, 식사, 놀이, 식재료 다듬기, 가사작업,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골목에서 행하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지역공동체의 장이자 일상생활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는 이때 형성된다.

1980년대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가전제품의 보급에 따른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완화와 TV보급에 따른 여가생활의 변화, 유치원의 일반화에 따른 육아의 부담 완화 등은 1980년대의 생활스타

일의 변화를 이끌고, 이 시기와 맞물려 80년 후반부터 골목에 자가용차들의 침범이 시작된다.

## 1990~2000년 골목

86 서울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 이후에 서울은 급속히 소비사회로 변화된다. 가족의 구성은 단출해지고 시장재화와 서비스는 더욱 다양해지고 보편화된다. 특히 가사 노동 영역별로 사회화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사업은 더 이상 아이들을 집주변에서 놀지 못하게 한다. 개인의 개인적인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생활 양식의 간소화와 외롭게 하지 않는 이동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발달은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변하게 했다. 결국 골목에서 행해지던 기존의 많은 활동들은 이미 골목이 아닌 집안이나 다른 특화된 목적의 공간인 도서관, 어린이집, 문화센터, 학원, 게임방, 패밀리 레스토랑 공원 등으로 옮겨갔다.

차량이 골목을 침범하기 시작한 시기와 사회·생활이 변화하는 시기가 맞물린다. 차량이 골목의 활동들을 몰아 냈다기보다는 기존의 활동들이 골목보다 비교우위의 공간으로 옮겨가고 마침 골목은 주차장으로 변하기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다. 골목은 방재의 목적으로 8M 내외의 소방도로라 불리는 도로로 확장되었다. 결정적으로는 '90년대 초에 주택건설 200만호를 목표로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정책을 세운다. 이는 저층 단독주택지를 짧은 기간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5~10세대가 한 필지에 거주하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갖춘 다세대 다가구 주택지로 바뀌게 한다. 결과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들이 주거지역의 골목을 점령하게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곧이어 도입하게 된다. 이후 골목의 활동은 확연하게 줄어든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이들이 낮엔

집을 떠나있고, 사람이 없는 동네에 트럭상인들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골목은 밖으로 나온 차량, 실외기, 음식물 쓰레기통 만이 나와 있는 모습이 골목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표 2-8 1990~2000년대 골목의 전경



“비록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속 시원히 팔지 못하고 떠안고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다세대주택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꺾노는 안도한다.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온전히 아내와 자식들의 차지가 될 테지만 꺾노로서는 그래도 의지할 것이 다세대주택 밖에 없다. 꺾노가 지금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올린 것은 1990년도였다. 서울 변두리마다 단층집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다. 전세 대란까지 겹쳐 손바닥만 한 땅만 있어도 바벨탑을 쌓듯 층층이 방을 쌓아 올렸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유세가 되었다. 단층집뿐이던 골목 안에도 다세대주택이 들어섰다. 자고 일어나면 전날까지 멀쩡하던 집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3, 4층 높이의 다세대주택이 들어섰다. 꺾노도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멀쩡한 집을 부수고 3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sup>53</sup>

이후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담장허물기를 통한

52 <http://www.soguri.com/>

53 김 슴, <북쪽 방>, 『2013년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서울, (주)현대문학, 2012년 12월(초판), 58~59쪽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녹색주차마을사업이 시행되고,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을 적용해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골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최근의 골목의 모습을 일부 바꾸게 한다. 담장을 허문 모습과 벽화들이 칠해진 골목경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 각 시대별 글목에서의 외부활동

표 2-9 시대별 글목에서의 외부 활동

시대활동 Optional activities	외부주요제 따라 선택		아이 놀이 다양화		아이 놀이 다양화		아이 놀이 다양화		특별 활동가구기	
	아이 놀이 (여자) 수다 (남자) 장가두기 등 계 돌아다니기 뒷밭가꾸기	아이 놀이 다양화 공각감기, 풀잡기, 송버풀이, 풀래잡기, 송버풀, 열타기, 영벙기, 사방치기, 자치기, 구술치기 (여자) 수다 뒷밭가꾸기	아이 놀이 다양화 구호를음 배금	아이 놀이 다양화 (여자) 수다, 육아, 뒷밭가꾸기 (남자) 장가두기, 어울림거리기 계 돌아다니기		아이 놀이 다양화 (여자) 수다, 육아, 뒷밭가꾸기 (남자) 장가두기, 어울림거리기 계 돌아다니기				
필수활동 Necessary activities	필래타 외래, 방물장수, 물장수, 장작장수	필래타 외래, 넓기, 방물장수, 물장수, 장작장수	필래타 외래, 넓기, 방물장수, 물장수, 장작장수	필래타 외래, 넓기, 방물장수, 물장수, 장작장수	필래타 외래, 넓기, 방물장수, 물장수, 장작장수	필래타 외래, 넓기, 방물장수, 물장수, 장작장수	필래타 외래, 넓기, 방물장수, 물장수, 장작장수	필래타 외래, 넓기, 방물장수, 물장수, 장작장수	필래타 외래, 넓기, 방물장수, 물장수, 장작장수	특별 활동가구기
기반사회의 기능 (도로, 장야수 등)	사람 가마, 수레, 통과 하수배출, 오물처리 단기(배출구(연통))	사람 가마, 수레, 통과 하수배출, 오물처리 공동화장실, 공동우물 단기(배출구(연통))	사람 가마, 수레, 통과 하수배출, 오물처리 공동화장실, 공동우물 단기(배출구(연통))	사람 가마, 수레, 통과 하수배출, 오물처리 공동화장실, 공동우물 단기(배출구(연통))	사람 가마, 수레, 통과 하수배출, 오물처리 공동화장실, 공동우물 단기(배출구(연통))	사람 가마, 수레, 통과 하수배출, 오물처리 공동화장실, 공동우물 단기(배출구(연통))	사람 가마, 수레, 통과 하수배출, 오물처리 공동화장실, 공동우물 단기(배출구(연통))	사람 가마, 수레, 통과 하수배출, 오물처리 공동화장실, 공동우물 단기(배출구(연통))	사람 가마, 수레, 통과 하수배출, 오물처리 공동화장실, 공동우물 단기(배출구(연통))	특별 활동가구기
사회	신분제 사회 상업 수용업 발달 시작	신분질서 의해 한문 인구 급증 도시문제 발생 시기지각촉진제구직	조선시대 계획형 도시문제 해결 도시정 안료, 근대적 의미의 글목	전후 복구 6이상수도 인프라 판자촌, 재건축 도시문제 해결	도시미시업 새마을운동유의 활동 주택200만호 보급 경제 부흥기외 IMF 도시문제 해결	도시미시업 새마을운동유의 활동 주택200만호 보급 경제 부흥기외 IMF 도시문제 해결	도시미시업 새마을운동유의 활동 주택200만호 보급 경제 부흥기외 IMF 도시문제 해결	도시미시업 새마을운동유의 활동 주택200만호 보급 경제 부흥기외 IMF 도시문제 해결	도시미시업 새마을운동유의 활동 주택200만호 보급 경제 부흥기외 IMF 도시문제 해결	특별 활동가구기
	물리 환경 (도로)	1.2M 이상	4M이상	4M이상	4M이상	4M 이상	4M 이상	4M 이상	4M 이상	특별 활동가구기
내부 건축	담으로 위요된 골목	상당체로 경계지어짐	상당체로 경계지어짐	상당체로 경계지어짐	상당체로 경계지어짐	상당체로 경계지어짐	상당체로 경계지어짐	상당체로 경계지어짐	상당체로 경계지어짐	특별 활동가구기
	마당으로 열린 폐쇄구조	마당으로 열린 폐쇄구조 행랑채, 행랑가죽	좁아진 마당, 폐쇄 구조 행랑채, 행랑가죽	좁아진 마당, 폐쇄 구조 행랑채, 행랑가죽	좁아진 마당, 폐쇄 구조 행랑채, 행랑가죽	좁아진 마당, 폐쇄 구조 행랑채, 행랑가죽	좁아진 마당, 폐쇄 구조 행랑채, 행랑가죽	좁아진 마당, 폐쇄 구조 행랑채, 행랑가죽	좁아진 마당, 폐쇄 구조 행랑채, 행랑가죽	특별 활동가구기
외부환경에 영향요소	도로,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특별 활동가구기
	도로,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도로, 연통, 정자, 오물	특별 활동가구기

- 조선시대, 개화기 : 골목에서 여성들의 가사 활동은 제한적임  
조선중후기 골목에서의 활동은 여성의 외부활동의 제약, 생활공간으로서의 마당의 역할, 좁고 열악한 골목의 환경 등의 이유로 통행의 목적, 지겟꾼, 행상 등 생계를 위한 골목 상업 활동, 빨래터로 가는 이동을 하는 생활상의 필수 활동들과 아이들의 놀이 활동 등으로 채워진다.

개화기 이후 여성들의 외부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골목 공간의 활동은 빈번해지나, 골목의 경관을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한양의 인구급증이였다. 이로 인하여 한양의 여러 처리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벗어나 골목이 오물과 오수에 그대로 방치된 것이다.<sup>54</sup> 그러나 이 시기에도 여전히 아이들과 개들은 오물로 뒤 덮힌 골목에서 놀았고, 보다 활발해진 상행위로 많은 행상과 떠돌이들이 골목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여성들의 가사 노동은 주로 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sup>55</sup> 그러나 인구급증으로 하층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졌다. 토막이나 밀집주거지의 경우 마당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실내가 외부보다 더 습하거나 통풍이 되지 않아 길 위에서 밥을 하고 자는 등의 생활하는 모습들이 종종 묘사되기도 한다.



그림 2-11 1920년 주택의 마당

- 일제시대 : 더욱 열악해진 골목 환경, 더욱 증가한 행상과 아이들  
일제 강점기엔 더 많아진 인구와 본격적으로 보급된 신문물, 신상품과 활성화된 상공업의 영향으로 더 많은 행상들이 골목을 누비고 다녔으며, 아이들의 놀이도 더욱 다양해진다. 대형 필지의 한옥들은 필지분할되어 담이 아닌 행랑채로 경계지어진 조밀한 마당을 가진 주택으로 변화하였

54 기호철·서민·배재훈·신동훈, 2013, “조선시대 한성부 사대문 안 토양의 오염 실태와 그 원인”,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Vol.56.

55 무라야마 지준, 2003, 「한국, 1930년대의 눈동자 : 무라야마가 본 조선민속」

며 행랑채에 세들어 사는 행랑 가족들로 인해 거주환경의 질은 더욱 나빠진다. 이로 인해 한옥 외부로 일상 활동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나, 골목의 오배수 배출 시스템이 그동안 개선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인구급증으로 인한 골목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특히 예전에 담으로 형성된 골목과는 달리, 연통이나 측간(변소) 등과 바로 맞닿은 골목은 항상 연기로 자욱하고 오물로 오염되기 쉬웠다.

반면에 이때 개발된 도시형 한옥에 의해 생겨난 도시 주거지의 골목이라는 공간은 이전의 공간과 비교하면 넓고 정돈된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공간의 주인은 사회변화로 인해 더욱 다양해진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아이들이었다. 많이 축소되었지만 마당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은 대문간과 계단을 너머 가사활동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까지는 마당이라는 공간이 선택적 활동에서 환경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졌다. 사회적 교류 활동들도 골목보다는 필수적 목적을 가진 장소인 빨래터나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의 골목의 가장 주된 기능은 통로로서의 기능이었다.

## 6 결론

### 6.1 각 시대별 골목 활동의 해석

#### 6.1.1 조선시대, 개화기 : 비교열위의 골목

언제부터인가 골목은 막연히 서민 생활의 무대이자 터전으로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문헌과 자료로 그것에 묘사된 경관이나 서술을 시대 상황에 비추어 분석하면 골목에서의 활동과 생활은 생각했던 것처럼 항상 일상 생활의 주요 무대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1930년대 이전까지 주택의 실내 공간, 마당, 골목, 빨래터 혹은 공동우물터 등의 선택 가능한 공간들 중에서 접근성이 가장 우수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이 우수한 공간은 마당이었다. 실제로 마당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목적 지인 빨래터나 우물가에서 필수적 활동과 더불어 교류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612 1950~60년대 : 필수적 생활공간인 골목

오늘날의 사람들 머리 속에 일상 생활의 장으로 각인하게 한 1950~80년대의 골목에서의 활동들도 각 연대마다 상황과 골목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용은 다르다. 즉 일상생활이라고 통칭해서 말하기에는 50년대의 골목에서 행해졌던 생계를 위한 절박한 활동과 오늘날 사람들의 머릿 속에 지역 공동체의 온기가 살아있는 70~80년대의 골목에서의 활동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50~60년대의 주택 내부와 골목의 환경은 어느 것이 더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환경이 모두 열악했다. 그러나 공동 우물과 공동 화장실을 같이 이용해야 하는 필수 기능들이 골목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환기나 채광 등의 조건은 오히려 골목이 생활하기에 양호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였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계에 관련한 여러 정보를 취득하기가 용이했으며, 아이들도 골목에서 놀이가 아닌 고물을 수거, 구걸을 하거나, 밤에는 통금을 피해 떡이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등의 생계에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해야만 했던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생활공간이었다. 이 시기가 골목의 필수활동과 사회적 교류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613 1970~80년대 : 비교 우위적 생활공간인 골목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70년대까지 진행되었던 상하수도 인프라 건설과 도로포장은 골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970~80년대에 활발했던 가내 제조업의 발달은 좁고 열악한 실내공간보다는 골목 공간을 작업장으로 활용하게 했고, 지역에 기반한 여러 활동들은 주택의

실내가 아닌 골목을 선택하여 육아, 식사, 놀이, 식재료 다듬기, 가사 작업, 학습 등을 하도록 했다.

1980년대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제도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이전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이끄는 시작점이 된다. 80년 후반부터 골목에 자가용차들의 침범이 시작되나 본격적인 변화는 주택의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던 1990년대에 가시화된다.

614

### 1990~2000년대 : 골목의 역할을 잃다

오늘날 주차장으로 변한 골목의 풍경을 만든 주범으로 1980년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자가용차의 대중화가 지목된다. 그러나 차량이 골목을 침범하기 시작한 시기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차량이 침범하기 이전에 골목에서 행해지던 활동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즉 골목보다 비교우위의 실내화된 목적 공간( 쾌적한 주택, 도서관, 문화센터, 학원, 게임방, 패밀리 레스토랑 등)으로 옮겨갔고, 바뀌어진 생활 방식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와 공간도 다른 곳에서 제공되었다.

이뿐 아니라 주택건설 200만호를 목표로 기존의 주택과는 다른 형태의 주거인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양산해 내고, 이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생활방식들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했다. 그리고 곧이어 생겨난 주차문제를 골목에서 해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여러 제도들을 양산해 내기 시작했다. 이는 이미 기존에 골목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대체장소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바뀌어진 생활방식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활동들을 위한 장소로서의 고려의 여지도 없이 이미 자가용차들이 차지를 해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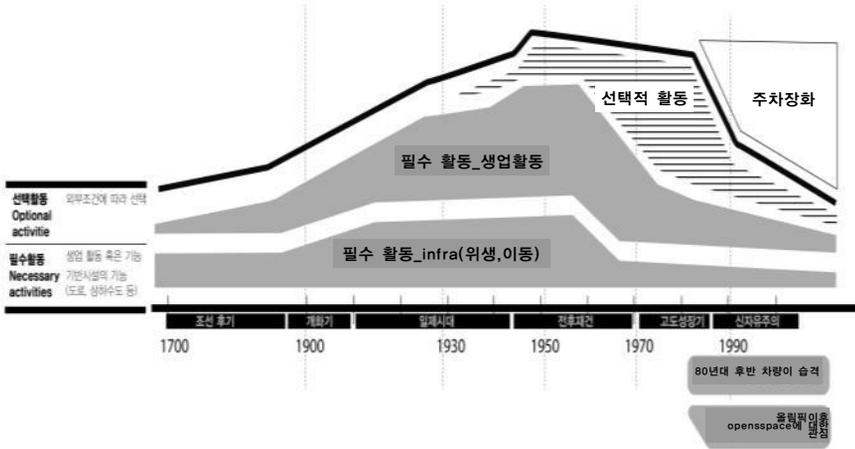


그림 2-12 시대별 골목 활동의 해석

## 6.2 서구의 외부활동변화와 한국의 골목활동 변화의 비교

지금까지 각 시대별로 살펴본 골목에서의 활동을 양질의 서양의 시대별 외부활동변화표에 맞추어 비교해 보면, 우리의 연구가 주거지 골목이라고 고 공간을 한정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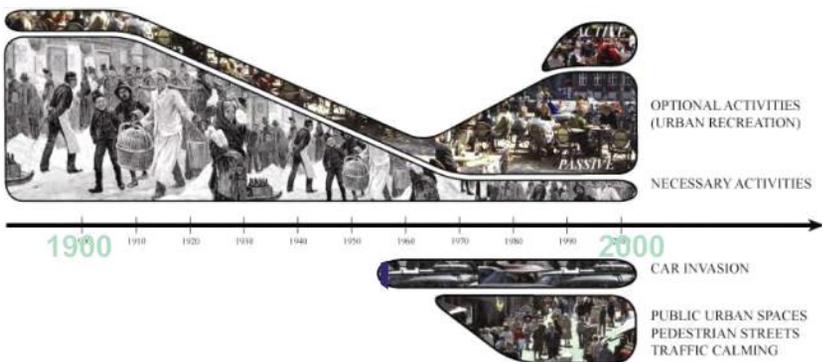


그림 2-13 시대별 양질의 외부활동 변화

- 일제 시대 이전 골목의 일상적 활동의 주 무대는 골목이 아니었다. 우선 두 활동다이어그램의 전체적인 모양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산업화, 도시화 이전의 외부활동의 양은 그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많다.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필수적인 물자 및 서비스와 그와 관련된 활동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도 비슷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정작 골목에서의 활동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여성의 외부활동의 제약, 상공업 발달 전인 탓에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서비스의 양이 많지 않았다는 이유들을 찾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당이라는 외부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 서양의 다이어그램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
  
- 보다 외부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활동은 이루어진다. 보다 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선택적 활동이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 경향은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동일한 현상이었다. 조선시대에서 일제까지 보다 환경이 나은 마당에서 외부활동이 이루어졌으며, 50~80년대에는 좁고 열악한 주택의 실내보다는 골목의 환경이 보다 비교우위에 있었다. 90년대 이후 실내 공간의 질이 개선되고 특화된 공간들로 분화되면서 골목은 선택적 활동들이 일어나는 장소들 사이에서 비교열위에 놓이게 된다.
  
- 필수 활동에서 선택적 활동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사회교류적 활동이 극대화된다. 골목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950년대 전후는 골목이 위생, 통로 등의 기반시설이 하는 기능이 가장 갖추어지지 않았던 열악한 시기였지만 길 위에서의 생활 즉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주택 내부의 환경 역시 더 나을 것이 없었던 까닭에 휴식, 놀이 등의 선택적 활동에 있어서도 비교우위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종류 속에서 사회교류의 활동이 극대화되었다.

오늘날 지역의 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뜻있는 주민들의 선택적 활동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골목의 필수적 기능을 보강하여 누구나 골목 공간을 필수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 III 골목 구멍가게의 쇠락 과정 - 해방촌을 중심으로

- 1 머리말
- 2 근린단위에서의 영세 소매업의 역할
- 3 구멍가게 쇠락 과정
- 4 맺음말

### III 골목 구멍가게의 쇠락 과정 - 해방촌을 중심으로 -

#### 1 머리말

#### 1.1 동네 구멍가게 접근 방식의 한계

“어린 시절 내가 살던 동네 어귀에는 점방(店房)이 있었다. 점방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없이도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곳이었다. 거기에는 문명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신비가 있었다. (중략) 벽에는 음력 날짜가 적힌 커다란 달력과 버스 시간표가 적힌 종이쪽이 달려 있다가 문이 열릴 때마다 흔들거렸고 철 지난 파리끈끈이에 초침의 발자국 같은 수많은 파리똥 자국이 벽 색깔을 결정했다. 원래부터 거기 있던 사람이든 오는 사람이든 가는 사람이든 모두 시간의 부자인 듯 느리게 움직였다.”(중략)

“사춘기부터 서울 변두리의 골목에서 살게 되었을 때 구멍가게가 점방을 대신했다. 빨간 공중전화가 가게 밖에 매달려 있고 겨울이면 호빵을 찌는 찜통이 김을 내뿜었다. 풍선 뽑기, 가로등 아래의 노란 굴 빛깔, 집에서 연탄불이 꺼졌을 때 가게의 불붙은 연탄을 사러 가던 때를 모두 기억한다. 구멍처럼 깊은 그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만화경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스무 살 언저리에 슈퍼마켓이 등장했다. 다소간은 생경한 영어 이름처럼 흰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물건 역시 낮이 쉽게 익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도 곧 골목에 사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갔다. 배추와 콩나물과 두부가 가게의 목 좋은 자리에 놓이면서 슈퍼마켓은 동네 사람들이 받음하기 쉽게 ‘동네 슈퍼’로 바뀌고 골목과 삶의 일부가 되었다.”<sup>56</sup>

---

56 [성석제의 사람 사람 사람] 내 어린 날의 점방, 구멍가게, 동네슈퍼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67478.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67478.html))

동네 구멍가게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재개발에 의해 사라진 동네와 골목길과 함께 사라진 구멍가게라는 장소와 가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커뮤니티 관계와 장소성의 회복과 관련한 관심이다. 이러한 관심은 최근의 생활공간 기반으로써의 골목길의 가치회복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동네와 골목,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이 최근의 도시계획의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동네가게 또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잡지나 기사와 같은 매체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인 접근이나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단순한 주장이 대부분이며<sup>57</sup> 학계의 실질적인 자료 구축이나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해석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시선은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업태인 재래시장 및 영세소매업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업태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부단한 관심과 노력이다(이성환, 2006; 박진아, 2012; 이현재 외, 2013). 이에 공공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기초자료나 성과로써 현재 골목상권의 단편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수치들을 발표하고 있다(김범식 외, 2012; 권태구 외, 2014).

현재의 상황을 단편화하여 수치화한 결과물은 동네의 최전방에서 물품을 공급해 왔던 소매상점으로써의 역할 소멸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동네의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통해서 운영되어 왔고, 사회적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구멍가게가 사라지게 된 과정이나 골목환경의 어떤 요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러한 가게의 소멸이 동네

57

2014.09.03 경향신문 인터넷 기사, “경제 살리기와 성장 강박”(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32044225&code=990100)  
 정근표, 2009, 「구멍가게: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행복을 파는 곳」, 샘터사  
 정지아, 2010, “사라져가는 점방의 풍경”, 「웹집 인권」

와 골목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해석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동네 인프라로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구멍 가게가 운영되는 방식이나 가게를 중심으로 얽혀 있는 공동체 네트워크의 존재와 활동, 그리고 주체에 대한 내용의 검토를 통하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멍가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변화를 짚어내고 이를 통하여 구멍가게가 쇠락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구멍가게는 동네의 사회적 장소로 작동하고 있는가이다. 이에 답하기 위하여 가게 이용행태, 가게 운영 방식, 가게 주인과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유지 방식, 가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가게의 역할 변화의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1 연구의 범위

구멍 가게는 소형점포로 주택가에서 식음료나 주류 등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며,<sup>58</sup> 지방에서는 가게로 쓰는 방이라는 뜻의<sup>59</sup> 점방이라고 불리웠다. 가게라는 말은 본래 한자어 가가(假家)에서 나온 말로 위계가 낮은 골목길이나 동네 어귀에 가건물인 가가를 짓고 생활필수품이나 과자 따위를 파는 ‘가가’에서 생겨난 말로 변음이 되어 오늘의 ‘가게’라는 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sup>60</sup>

58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169200>

59 이경한, 2012, 「일상에서 장소를 만나다」, 푸른길, 17쪽

6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3357&cid=43075&categoryId=43075>

1960년대 처음 우리나라에 슈퍼마켓이 도입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동네 구멍 가게는 00수퍼로 불리우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 등록된 회원본부에 가입한 임의 가맹점으로 회원본부로부터 상품을 공급 받으며, 대부분 주택지역에 위치하여 주로 식료품을 중심으로 생활용품을 취급하고, 영업시간이 길며, 매장 면적이 150㎡ 미만이고 점포주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한 생계형 위주의 점포를 말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가게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종합소매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소매업’으로 정의되는 영세 소매업장으로<sup>61</sup> 구멍가게와 동네 슈퍼마켓을 포함한 소규모 판매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및 사회 활동의 변화와 가게의 역할 수행 간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다양한 구성원에 의한 공동체의 구축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이신철, 2000; 공윤경, 2014) 해방촌 내 소규모 판매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13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일상생활 연구에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론 가운데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활용한다. 참여관찰의 효용성은 총체적 시각으로 다양한 자료가 획득 가능하다는 점이며(김봉렬, 2013: 12) 동네에서의 커뮤니티가 가게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술하는데 있어 매우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관찰을 통해서는 동네 가게의 공간적 환경 특성과 가게에서 이루어

---

손정목, 1977, 「조선시대도시사회연구」, 서울, 일조각, 354쪽

[네이버 지식백과] 구멍가게 (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문화여행(아시아편), 2009.9.16, 박문사)  
6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지는 주인과 손님 간의 대화 내용, 손님의 특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서는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들의 생애사에 접근하였다. 주요한 인터뷰 내용들은 해방촌 이주 시기, 가게 운영의 계기, 가게 운영 방식, 현재 수익 현황, 주 이용 계층의 변화 등이다.

이 연구를 위한 가게의 선정은 해방촌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영세소매상점 4개소와 최근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서고 있는 신흥로의 영세소매상점 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관찰과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현장관찰과 인터뷰는 2014년 6월과 7월에 이루어졌다. 현장관찰을 한 가게와 가게 주인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3-1 인터뷰 목록**

인터뷰 대상	경력	판매 품목	인터뷰 대상	인터뷰 형식
사례 1	50년	과자/라면/아이스크림/ 담배/술/음료수/우유/세제/ 휴지	주인 70대 중반 남성	현장 인터뷰
사례 2	40년 (현재 위치 가게는 10년 정도)	쌀/과자/라면/아이스크림/ 담배/술/음료수/우유/ 세제/휴지	주인 60대 초반 여성	심층 인터뷰
사례 3	60년	과자/라면/아이스크림/ 담배/술/음료수/우유/ 세제/휴지	주인 70대 중반 여성	심층 인터뷰
사례 4	16년 거주는 68년도부터	냉동식품/냉장식품/ 신선식품(두부, 콩나물, 계란)/과자/라면/아이스크림/담 배/술/음료수/우유 /세제/휴지	주인 60대 초반 남성	심층 인터뷰
사례 5	27년	쌀/과자/라면/아이스크림/ 담배/술/음료수/우유/ 세제/휴지	주인 50대 후반 남성	현장 인터뷰
사례 6	21년	과일/쌀가루/와인/과자/ 라면/아이스크림/담배/술/ 음료수/우유/세제/휴지	주인 60대 초반 여성	심층 인터뷰
사례 7	가게만 6년 해방촌에서는 45년	각종 과일/야채	주인 60대 중반 여성	현장 인터뷰
사례 8	-	과자/라면/아이스크림/ 담배/술/음료수/우유/세제/ 휴지	주인 아들 40대 중반 남성	현장 관찰 인터뷰 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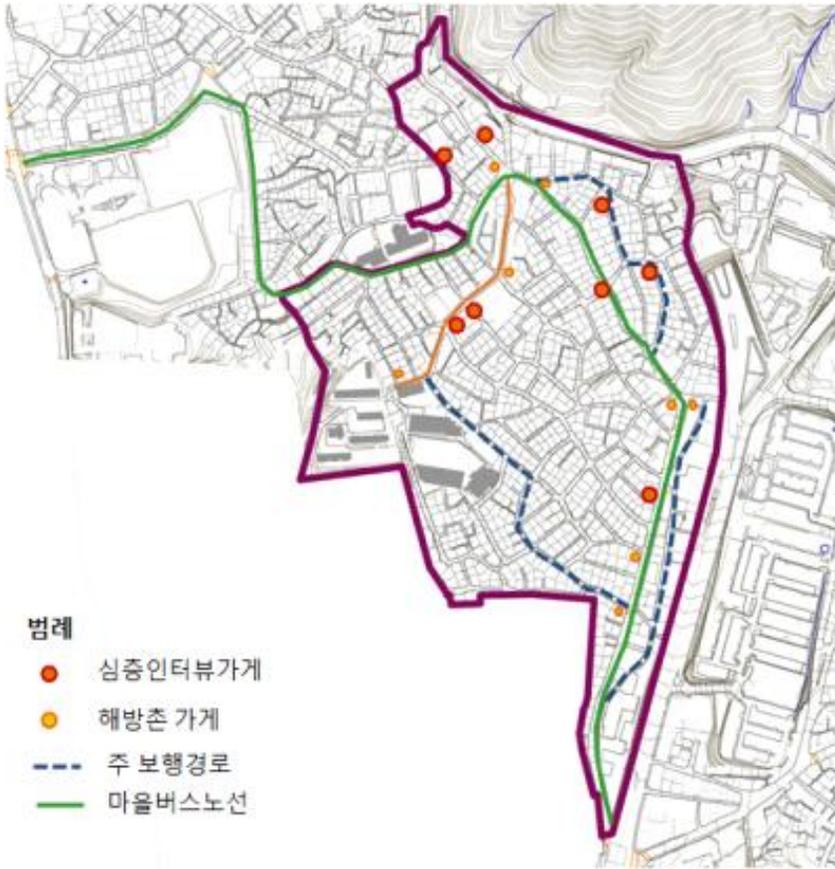


그림 3-1 현장 관찰 및 심층 인터뷰 대상 가게의 위치

## 2 근린단위에서의 영세 소매업의 역할

### 2.1 경제적인 측면

소매업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지칭하며(김혜원, 2005: 53), 생산과 유통의 종점인 동시에 소비의 출발점으로 산업구조상 매우 중요한 산업일 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의 경제활동과 직결되어 있다(김범식 외, 2013:

3). 이에 국내 선행연구들이 영세 소매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의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수요나 선택요인 등을 분석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 마케팅 활동 관련 운영 방식의 개선,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현재 외, 2013: 42).

## 2.2 사회적 측면

가계의 주인들과 물건을 사러 들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과 상점의 주인들은 동네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하며 살아 왔다.<sup>62</sup> 이러한 측면에서 동네 가게는 동네나 골목의 대표적인 사회적 장소로 지목되어 왔다(제인 제이콥스, 1961; Clarke and Banga, 2010; Baron et al., 2001; Everts, 2010).

이와 관련하여 국외의 연구들은 사회적 장소로서의 가게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근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장면들을 기반으로 가게의 사회적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 방식, 과정에 대해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가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정의하고 있다(Smith and Sparks, 2000). 유럽의 경우 이민자들이 근린 내 작은 가게를 통해 지역 내 커뮤니티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을 질적 연구를 통해 고찰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Everts, 2010). 또한, 작은 지역 내에서 가게의 폐쇄로 인한 지역 내 사회적 접촉이 감소되었음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Hare et al., 2001).

62

이와 관련하여 제인 제이콥스와 안젤은 거리의 사회 생활의 중심에 보도의 공적 인물이 존재하며 이 공적인 인물은 주로 동네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적 인물은 단순히 보도생활에서의 접촉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 생활의 기본 고리가 될 수 있으며 공공의 안전을 함께 담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네 구멍가게는 교통이 불편한 근린에서는 보행범위 내에서 소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며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근린 내 필수 시설이다(Furey et al., 2002). 가난한 사람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소단위로 포장된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동네의 작은 가게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상품을 구비해 놓을 수도 있으며(Paddison and Calderwood, 2007), 노년층에게는 공동체와의 접촉이 가능한 공공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Hare et al., 2001). 국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근린 내 가게의 사회적 역할 규명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다만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실직자들이 제2의 직업으로 별다른 기술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소매업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 현상에 기반하여 소매업이 일종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해석이 이루어졌을 뿐이다(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05.31 보도자료; 서용구 외, 2012; 김범식, 2013: 3).

### 2.3 동네 기반 구멍가게의 의미와 역할 찾기

전상인(2014)은 한국에서 편의점이 급속도로 확장된 배경과 현재 편의점이 구축한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실마리 찾기’ 전략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편의점이 입지한 지역과 건물의 형태와 같은 공간요소, 가게의 상품이나 운영방식과 같은 프로그램 요소, 편의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 등과 같은 커뮤니티 요소들을 관찰하고 이 장면들을 기존의 도시사회 이론에 기반하여 해석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소매 유통 채널로서의 편의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도 이러한 관점을 차용하여 구멍가게의 공간요소, 프로그램요소, 커뮤니티 요소들을 관찰하고 가게 주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핵심 장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 3.1 복합 생활 거점으로써의 지위 상실

1984년 개봉한 <바보선언>에 그려진 서울 모습에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어느 달동네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골목길이 갈라지는 초입의 동네가게의 출입문에는 복덕방 간판이 손 글씨로 쓰여져 있다. 골목의 상점은 동네 주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 왔다. 필요한 음식의 재료나 물품뿐만이 아니라 문방구와 오락실을 역할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평상이 놓여 있으면 간단한 먹을거리를 들고 앉아서 담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단순한 소매상점이 아니라 동네에서 필요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림 3-2 동네 입구의 가게 겸 복덕방

출처 : 영화 &lt;바보선언&gt;의 한 장면

<http://blog.naver.com/s5we/220071576592>

그림 3-3 과일, 잡화, 문방구를 겸하고 있는 가게

출처 : 닐 미셀로프 사진집

<http://blog.naver.com/s5we/150040910754>

해방촌의 가게들 또한 초기에는 소매점 이외에도 쌀가게와 문방구 등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의 가게를 운영하였다.

사례2 가게의 주인은 쌀가게와 연탄가게, 쌀과 비디오 가게를 함께 운영하다가 현재 가게가 있는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소매점을 기반으로 쌀가게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는 더 이상 쌀을 판매하지는

않고 있지만 가게의 간판에서 이전의 쌀가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사례3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문방구를 함께 운영하였다. 그러나 몇 년 전 부터 문방구와 관련한 물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용산에서 과일가게를 하다가 16년 전에 해방촌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사례6의 경우도 처음에 가게를 시작할 때는 이전부터 하던 과일가게를 함께 운영하였다. 그러나 손님이 점차 줄고 과일 냉장고를 별도로 구비 하고 있지 않아 바나나, 사과 등과 같이 대표적인 몇 가지의 과일만을 판매하고 있었다.

“85년도에 해방촌에 이사를 오면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의 가게에서(현재 세 탁소가 운영되고 있다) 쌀가게를 시작했지. 그 후에 실 감는 집으로 옮기면서 연 탄가게랑 쌀가게를 했고 미용실이 있는 자리로 옮기면서는 쌀가게랑 비디오 가 게를 했어. 여기로 옮기면서도 슈퍼랑 쌀가게는 같이 했어. 근데 요샌 누가 집에 서 밥을 먹나. 그러니까 쌀이 안 팔리지.”(사례2)

“원래는 문방구도 같이 했었어. 그런데 요새는 동네에 애들이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몇 년 전 즈음에 문방구는 정리 했지.”(사례3)

“해방촌 오기 전에 용산에서 과일 장사를 했었어. 거기서 여기로 오면서 슈퍼랑 과일을 같이 했어. 요새는 잘 안 팔려서 그나마도 많이 안 가져다 놔. 과일을 하려 면 냉장고가 있어야 하는데 과일이 보관하기가 힘들거든 금방 상하니까.”(사례6)



그림 3-4 주거공간으로 대체된 이전 가게의 흔적



그림 3-5 이전 가게의 변화를 알려주는 간판

현재 가게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 또한 주류, 과자류, 생활용품, 담배, 지사채 쓰레기봉투 등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상품군들로 간소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정된 상표의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었다.

사례1이나 사례2의 가게의 경우에는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가게 내부 진열장의 일부는 비워져 있는 곳도 있다.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술,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이 주로 팔리는 품목이라고 답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담배의 판매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찰 기간 중에는 특정 상표의 상품 구입을 원하는 손님이 방문하였으나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다른 상표의 상품을 구입해서 가는 경우도 관찰할 수 있었다(2014년 7월 8일 관찰일지, 사례2).

가게를 주로 방문하는 손님들이 자주 찾는 상품만을 전략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사례도 관찰할 수 있었다. 사례6의 가게에서는 취업을 위하여 해방촌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인들이 주로 찾는 쌀가루나 선호하는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사례4의 가게에서도 단골손님이 선호하는 특정 상품만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에 대부분의 구멍가게들은 수요에 맞게 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던 복합 상점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점차 단순 소매점 운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상인(2014: 110~114)은 편의점이 단순 소매상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생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복합 만능 생활 거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구멍가게는 이와 반대로 동네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던 가게의 형태에서 점차 단순한 소매상점의 역할로 축소시켜 나감으로써 동네의 일상을 지원하는 생활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편의점에 내준 상태이다.



그림 3-6 취급 물품 감소로 인한 빈 진열장

## 3.2 이용자 변화에 따른 관계변화

### 3.2.1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주이용 계층의 변화

해방촌 구멍가게는 오랜 기간 동안 한 자리에서 운영되어 왔다. 주인이 바뀌거나 판매하는 물품이 변화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주인은 기존의 가게 상호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가게를 다시 임대 받아 운영한 주인도 해방촌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해방촌 내 다른 장소에서 가게를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동네를 기반으로 한 공고한 공동체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가게를 주로 방문하는 손님들은 기존의 공동체 구성원보다는 최근에 해방촌으로 이사 온 사람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방문하는 단골 손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이 가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손님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가게를 주로 이용하는 손님의 대부분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답하였다.

집이나 가게 근처에서 모여 살던 이웃들의 반 정도는 해방촌에 분 몇 차례의 개발 압력으로 인하여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해방촌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아져 더 이상 동네의 구멍가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차를 가지고 서울역이나 용산역의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기 때문이다.

“주로 오는 손님이야 당연히 주변 동네 사람들이지. 집주인들은 차타고 나가 마트에 가지 이런 가게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아요. 주로 세 들어 사는 사람이나 온다.”(사례1)

“이 동네는 원래 슈타(스웨터의 일본 말로 옛날부터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시는 듯)를 주로 많이 했거든. 근데 슈타가 이제 다 중국 같은 곳으로 빠져나가버려서 동네가 이제..... 이전에는 부부가 같이 그걸로 벌어먹고 살았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 이젠 슈타들도 잘 안 돼. 이제 공장도 다 없어지고 .....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서 월급 타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젠 그런 것도 잘 안 되니까 월급들도 잘 안 주고 동네가 죽었어. 그게 줄어들니까 장사가 잘 안 돼. 그리고 이런 데서도 물건을 좀 팔아주어야 하는데 전부 다 차로 마트 같은 데 가서 사니까 일단 대기업으로만 돈이 다 들어가 버리지. 이런 데서도 안 사주니까 돈도 안 돌고. 서로 못 사니까 도와주지도 못하고..... 어려워!”(사례4)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일상에서 장보기 행태의 변화는 동네 가게의 주 이용 계층의 변화를 가져 왔다. 오랫동안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던 이웃 보다는 최근에 해방촌에 이사를 온 뜨내기들이 동네 가게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된 것이다.

“우리집은 한국 사람, 외국사람 반반이야. 우리 집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물건이 싸고 비싸고를 따지거든. 싼 거를 많이 찾거든. 우리 집이 다른 데보다 물건이 조금 싸거든. 그리고 저거를 찾는 물건도 있고. 10명 들어오면 다섯 명은 이 사람들이야. 5-6명은 이 사람들이야.  
(연구자) 그런 사람들은 눈에 익는 자주 오는 사람들인가요? (답변)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왔다가 날짜가 되면 나가니까. 보니까 나이지리아는 석 달 있다가 나가고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사례 6)

### 3 2 2 단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얇은 관계

그러나 가게를 이용하는 계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관계망 구축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 이사 온 동네 구성원에 대해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사례1 가게의 주인은 유일하게 가게 내부에 녹화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하였다. 설치 이유에 대해서는 동네에 질이 좋지 않은 아이들로 인한 도난이나 취객들의 행패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였다. 심층면접 시에는 앞집에 이사 온 집 아들의 잘못된 주차 방식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례2 가게의 여주인 또한 주변의 새로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웃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사전 면담 시에는 해방촌에서는 모두가 한집 같이 살고 있으며 서로 잘 알고 지내기 때문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하였다(2014년 6월 21일 관찰일지). 그러나 심층면접 시에 2층에 살고 있는 앞집의 60대 남성이 문을 열고 외부를 확인하자 여주인은 남성의 행동을 못 마땅하게 여기며 이웃과 간단한 인사조차 하지 않는 남성의 폐쇄적인 태도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심층 인터뷰와 현장관찰 도중에 방문한 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가 질문했을 때에 대부분의 가게 주인은 동네에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별히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손님과는 별다른 인사 없이 상품의 구비여부나 계산, 포장과 관련한 간단한 대화만을 주고받을 뿐이다.



그림 3-7 가게 내부 감시를 위해 설치한 CCTV와 거울(사례2)

## 외상판매 방식 중단

이러한 이용 계층의 변화와 단순한 이해관계만을 기반으로 한 얇은 관계 구축은 가게 판매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더 이상 외상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외상 판매는 이웃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단기간 거주하는 뜨내기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고 이사를 가버려 손해를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은 외상을 하지 않으며 몇 번 가게에 들러서 얼굴을 익힌 사이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인들은 외상 판매를 꺼려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외상장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안 한다. 그러나 사정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가끔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해. 정말 잘 아는 사이에는 외상을 안 하지. 새로 이사 온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외상을 한다. 예전에 외상을 해 놓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사례2)

“가게에 와서 돈을 안 가지고 왔네 이러면서 한번만 해 달라고 해. 그래서 외상을 주면 잊어버리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더라고. 자꾸 당하니까 이제는 잘 안 하려고 하지. 근데 이게 사람 사는 일이라서 또 너무 강하게 안 해버리면 안 되거든 사람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해. 오죽 하면 떼먹고 도망가겠어.”(사례4 가게의 남자 주인)

“동네 장사는 막 외상도 주게 되고 떼이고 그래요. 뜨내기로 온 것들이 외상으로 사 가서는 도망가 버렸지. 장사를 오래 하면 안 당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러겠지 하면서 또 속고 또 속는다.”(사례4 가게의 여자 주인)

“우리 집은 외상은 잘 안 줘. (연구자) 혹시 주로 오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라서 안 주시는 건가요? (답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찌다보니 그렇게 됐어. 딱딱 잘 갖다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데.....옛날에는 한번은 줄 수 있다 싶어서 외상을 주면 그냥 들어가 버리거나 없어져버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사례6)

## 331 이용 주체별 사회적 활동의 차이

본래 구멍가게와 같은 전통적 근린상업시설은 인적 교류, 정보교환, 공론형성, 신용거래 등을 통해 사회 자본을 형성하여 왔으며 이용 주체들 간에 낮은 강도의 지속적인 사회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동네의 중요한 사회적 장소로 해석되어 왔다(제인 제이콥스, 1961; 안젤, 2003; 이헌재 외, 2013: 42; 전상인, 2014: 118). 걷기를 기반으로 한 일상적인 필수 활동이 다양한 조건 하에서 선택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방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 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활동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현장관찰과 심층면접 기간 중에 관찰된 가게 주인과 손님 간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대화 내용은 관계망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새로운 구성원과는 편의점에서 단편적인 대화만(전상인, 2014: 84~85) 이루어질 뿐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계산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게 주인들은 이를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2014년 7월 13일 현장관찰일지 사례2, 사례3). 그러나 오랜 기간 관계를 구축해 온 구성원과는 안부를 묻거나 일전에 손님의 가족을 동네 어귀에서 보았다와 같은 가족의 근황이나 건강관리를 위해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 등에 대해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2014년 7월 13일 현장 관찰일지 사례2). 또한 가게에 여자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남자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할아버지들이 가게 앞에 놓여진 의자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2014년 6월 21일 현장 관찰일지 사례1, 2014년 7월 13일 현장 관찰일지 사례7).

**별도의 장소에서 여가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강한 강도의 사회적 활동**  
 해방촌은 지연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신철, 2000: 96~100).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출신 지역에 따라서 향우회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가게 주인 부부 모두가 향우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남자 주인만이 정기적으로 향우회 모임에 나가고 있었다. 여자 주인의 경우 향우회보다는 이전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이웃 간의 계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기존의 커뮤니티와의 사회적 활동의 가장 큰 특성은 일상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별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여가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저녁을 같이 먹거나 회비를 모아서 근교로 나들이를 함께 가는 등의 일상을 벗어난 강한 강도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웃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충청 향우회가 있기는 한데 골치가 아파서 거기는 안가. 서로 싸워서 향우회도 두 개로 갈라지고..... 한 동네 살면서 친해진 10명에서 계를 하지. 지금은 2명이 이사를 가서 8명만 모여. 한 달에 한번 5만원 내서 저녁을 먹고 남은 돈은 모아서 꽃놀이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 이번에는 싱가포르에 가기로 했어.”(사례2)

### 3.4 개발 압력에 취약한 구조

#### 3.4.1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

해방촌 내부 골목길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들은 모두 자신의 건물에서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례1 가게의 경우 인건비조차도 가게 수익을 통해 얻기 힘든 상황이며 판매를 위한 물품 구매 비용도 경우 충당할 수 있는 수익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얻고 있다. 대부분이 3층 정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다른 가게의 임대료를 받거나 주거 공간을 임대하여 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현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더 이상 장사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가게를 고쳐서 더 높은 임대수익이 나오는 용도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2 가게의 경우 작년부터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점차 판매하고 있는 물품의 가짓수를 줄여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게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손님이 원하는 상품의 상표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가게의 수익은 점차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구멍가게는 언제라도 수익이 높은 다른 목적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인건비, 전기세도 안 나와요. 가게 회전이 안 되는 수준이다. 오늘 팔아서 내일 살 물건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는 물건을 집어넣을 정도의 돈도 안 남아요. 이제 가게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세를 놓으려고 생각중이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그 이야기를 했어. 나이도 많고 장사도 잘 안 되니 이제는 그만 쉬려고 .....”(사례1)

“서울역 롯데마트, 용산역 이마트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장사가 안 된다. 최근에는 보광동에 마트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는 더 힘들어졌어. 우리 집이야 가게세도 없으니 그냥 놀기 위해서 가게를 하는 거지. 어차피 집 세놓은 돈으로 생활하니까. 가게 시작하자마자 잘 됐지. 하루에 백 만원씩 벌 때도 있었다니까. 근데 요새는 최악이야. 작년에도 가게 접으려고 했어. 방으로 고쳐서 세를 놓으면 더 나올 것 같아서.....”(사례2)



그림 3-8 가게 주인 소유의 건물

### 3 4 2 60대 이상의 노인 부부 중심의 가게 운영 방식

대부분의 가게는 60대 이상의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보통 부부가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가게를 보고 있지만 남자 주인이 주도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여자 주인은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문을 열고 밤 12시 이후가 되어야 영업을 마치며 일주일 중 쉬는 날은 없다. 비정기적으로 자녀나 친척들이(사례 3, 사례4, 사례8) 가게를 봐주는 경우가 있지만 주인 부부를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쉬는 날 없이 아침 일찍 열고 밤 늦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임을 연구자에게 토로하기도 하였다.

“가게가 제일 힘들어 원래 이런 일이 제일 할 일이 많아. 일찍 나와야 하고 밤에 늦게까지 열어놔야 하고 힘들어 요샌 장사도 잘 안 돼. 그래도 할 것이 없어서 노느니 하고 있는 거지. 가게를 혼자서는 못 본다. 내외가 번갈아 가며 보고 있지. 둘이 해도 힘들다.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수지가 맞지를 않아.”(사례8)

## 4 맺음말

해방촌 구멍가게는 생활 방식과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동네의 다양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품을 복합적으로 판매하던 가게는 점차 전문화되고 분화된 가게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식음료를 파는 단순 소매상점으로 그 기능이 단순화되어 복합 생활거점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또한 구멍가게의 손님이자 이웃이었던 기존 공동체가 해체되고 주변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면서 가게의 주요 이용계층은 가게 주변의 세를 들어 사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변화하였다.

이전 구멍가게의 경우 주 이용계층과 가게 주인과 강한 커뮤니티 관계를 맺고 있는 계층이 동일하였다면 현재는 이용계층과 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계층이 분리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가게 주인과 손님 간에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못하였으며 단순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얇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외상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게를 중심으로 한 약한 강도의 사회적 접촉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별도의 장소에서 여가활동을 겸한 강한 강도의 사회적 활동이 커뮤니티 관계 유지를 위한 주요 활동이 되었다.

해방촌 가게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주인의 대부분이 6,70대 이상이다. 이로 인해 가게가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게 주인들은 임대소득이 높은 용도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41

#### 해방촌 구멍가게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장소인가?

가게 안으로 젊은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들어선다. 얼굴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본 김보현씨가 묻는다.

“이사 왔어요?”

아이는 음료수 내장고로 달려가고 젊은 어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음식물 쓰레기통 찾아요?”

그런 걸 가게에 와서 물어도 되나 싶었는데 망설이던 젊은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

“예.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요? 아파트에는 수거통이 있어서 거기다 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보이네요.”

김보현 씨는 이웃으로 이사 온 피붙이나 되듯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짜는 물론 묻지도 않은 분리수거 등등, 이 동네 주민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꼼꼼히 알려준다. 대형마트에 다양한 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동네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것이 대형마트에 대항할 작은 가게의 유일한 힘일지도 모른다. 10여 분 살가운 대화를 나눈 손님이 사간 것이라곤 음식물 쓰레기통과 스티커, 그리고 음료수 한 병이 전부다.<sup>63</sup>

- 문턱이 낮은 커뮤니티 게이트

처음 이사 온 주민이 동네의 생활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은 구멍가게이다. 주변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내놓는 요일과 분리수거 방식에 관한 정보를 가게 주인에게 들을 수 있다(관찰일지 2014년 7월 13일). 새로운 공동체로의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의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 특정 구성원들만의(6,70대들) 공공장소

6,70대 이상에게 구멍가게는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번은 들르게 되는 공공장소이다. 해방촌 내에는 커뮤니티 센터와 노인정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동네에서 보내야 하는 노인들에게 구멍가게는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

63

정지아, 2010, “사라져가는 점방의 풍경”, 「웹집 인권」  
([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view.jsp?no\\_idx=17922&category=C&sub\\_category=BB&article\\_idx=17931&page\\_num=2](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view.jsp?no_idx=17922&category=C&sub_category=BB&article_idx=17931&page_num=2))



그림 3-9 특정 구성원들만의 공공장소

## 4 2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기존의 정책과 연구들이 구멍가게가 편의점으로 대체되어 가는 현상을 정량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내지 못한 다른 관점의 구멍가게의 역할과 의미 변화, 이로 인한 동네 및 골목 환경의 변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이전의 구멍가게가 수행하던 소매상점 역할은 편의점이, 동네의 사회적 장소의 역할은 카페가 대체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커뮤니티 센터 이외에 동네 공방, 마을예술창작소 등과 같은 다양한 위계의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 또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공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주요 커뮤니티 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 혹은 30~40대 부부 등과 같이 특정 연령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의 마련이나 활동 등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결과 해방촌 가게 주인들은 언제라도 가게를 닫고 수익이 높은 공간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영세 소매상점 하나가 사라지는 것 이외에도 처음 이사 와서 동네가 지켜가고 있는 생활의 질서에 대한 정보 공유의 창구와 60대 이상 노년층의 주요 생활 거점의 부재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 역할에 대한 대체재

가 마련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멍가게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게의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복합적 처방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은 동네에서 구멍가게가 사라진 이후 예상되는 동네 혹은 골목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까지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 IV 골목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서촌을 중심으로

- 1 서론
- 2 골목길의 가치와 역할 변화
- 3 서촌 지역에서의 골목의 의미
- 4 공유공간으로서의 골목길 재탐색
- 5 결론

# IV 골목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 서촌을 중심으로

## 1 서론

### 11 연구 배경

#### 111 서촌 골목에 대한 관심

신문기사와 블로그, 방송 등 여러 매체<sup>64</sup>를 통해 접하게 되는 서촌과 서촌 골목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비단 서촌뿐 아니라, 최근의 ‘골목문화’ 열풍은 학술회의 개최, 서울시의 정책지원 등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sup>65</sup>과도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문·사회·건축·도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우리의 골목길 공동체 문화와 사회적 기능 등에 대한 회귀를 바라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골목길 담론이 형성되면서 골목길 보존이나 골목문화 활성화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골목길의 문화적 풍경에 집중된 관심과 최근의 골목 열풍이 가져온 동네의 변화, 그리고 실제 골목길을 매일 마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64 “주말 도심 속 나들이, 서촌 마을이 뜬다”, 매일경제 2013년 5월 12일자 기사(<http://news.mk.co.kr/newsRead.php?no=367230&year=2013>), “경복궁 옆 서촌 골목,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라”, 경향신문 2014년 7월 22일자 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22109525&code=96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22109525&code=960202)), [도보여행] “느리게 걷기, 서촌 골목길에서 흐르는 시간을 찾다”(<http://blog.daum.net/chnagk/11264238>), “서촌 나들이,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http://qubix.tistory.com/986>)” 등

6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34019>

## 현실에서 만나는 골목

서촌과 서촌골목에 대한 주요 이슈는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서촌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서 본 골목이다. 북촌이 상업화에 따라 많은 문제를 노출하게 됨에 따라 서촌 지역 주민들에게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sup>66</sup>를 찾게 된다. 이것은 앞서 논의되었던 여러 맥락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골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커뮤니티 관계와 일상생활공간으로서의 골목공간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보는 골목이다. 역사적인 동네, 문화와 예술이 꽃피웠던 동네에 대한 외부인의 시선 안에서 서촌의 골목은 소박한 삶의 체취가 남아있는 장소이자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다는 점에서 찾고 싶은 동네가 되어가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슈들이 고스란히 나타는 골목은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하고, 싸움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골목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여 서촌 골목의 공유공간으로서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장(4장)에서는 개인주의화와 익명성 등 산업화된 도시사회의 사회적 속성으로 인해 도심 내 주거지에서 공동체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골목길을 가진 동네에서 골목을 매개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서 공동체 소멸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지, 골목이 공동체 공유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탐색하고자 한다.

66

“밝아진 서촌 골목, 그늘진 주민 얼굴”, 서울신문 2014년 8월 18일 9면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18009018>)

## 131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공간 및 공유공간의 개념에 대한 이론과 선행 연구 고찰, 법·제도 분석을 통해 골목길의 조성·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서촌 지역에서의 골목길 현황을 골목길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 발생의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서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목길의 이용과 공유공간으로서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32 연구의 공간적 범위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누하동, 효자동, 옥인동 등 서촌 지역 일대<sup>67</sup>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정한다. 대상지는 한옥주거지 내 골목길을 포함한 다양한 위계의 가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골목길 보전, 도로환경 개선, 주차공간 부족, 외부인의 유입 확대 등 골목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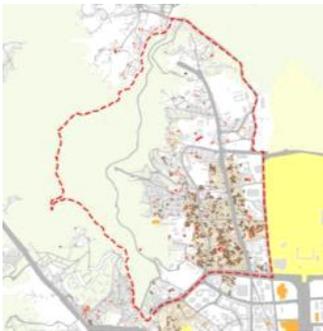


그림 4-1 연구의 공간적 범위

67

이 연구에서는 서촌(경복궁 서측, 윗대)은 남측으로는 사직로, 동측으로는 경복궁 서측 효자로, 북·서측으로는 인왕산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뜻하고 있다.<sup>68</sup> 혹은 건물 내부의 중정부터 건물과 건물 사이, 넓게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오픈스페이스까지도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정의 이외에도, 공공공간이라는 용어에는 공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영역 즉 공적 영역이라는 의미와 도시의 광장, 시장과 같이 개방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조경진 외, 2011). 그러나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공간은 기존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나 실천적인 영역에서의 디자인 경향 분석만으로는 다 답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염철호 외, 2008; 조경진 외, 2011). 기존의 물리적인 영역 중심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 관련 주체들 간 합의, 이용자의 인식이나 활동 등과 같이 공공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한나 아렌트, 2002; Carmona, 2010; 염철호 외, 2008; 이상봉, 2011).

## 공유공간으로서의 골목길

서울시는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sup>69</sup>한다. 현재 시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관련 논의들 또한 도시 내 부분적 영역으로서 혹은 활동으로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유공간에 관한 연구들은 도시공간에서보다는 건축물이나 주거시

68

건축기본법 제3조

69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 1항, 2012, 서울특별시

설 내에서의 공동영역(공용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경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도시차원에서 ‘동네’라는 한정된 주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공공공간과 공유공간을 분리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이상봉, 2011; 하용삼 외, 2011; 손은하, 2012). 이를 통해 보면, 공공소유지만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개방된 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이 활용하는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 그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공유공간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역 단위에서 한정된 주체의 생활공간적 측면에서 바라본 공유공간은 기존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서 분리하여 공적 영역으로부터는 외부인의 접근을 여과 혹은 유도하며, 사적 영역으로부터는 거주자들의 주생활의 일부를 끌어내어 편의를 도모하고, 거주자 간 상호교류를 증대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다(손은하, 2012).

사실 이러한 정의에 맞추어 본다면, 골목길은 주민들이 집을 나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공공간이면서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의 연속적인 공간, 골목길과 닿아 있는 각 주호들이 공유하는 공유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개인의 일상생활공간의 가능성을 가진다. 근린 광장과 공원이 없는 한국 도시, 특히 외부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저층 단독주택지에서의 골목과 가로는 중요한 외부공간이자 공동체 공간으로서(황익주, 2005) 이미 오랫동안 공유공간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것과는 달리, 사회와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외부 활동이 실종되고 있는 오늘날의 골목은 통과와 생활서비스를 위한 기반 시설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개인차량들이 주정차를 위해 점유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시대 골목은 과거 전통적 공유공간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도로 본연의 차량 통행조차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재용 외, 2006). 골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원이나 광장과는 다

른, 골목길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실질적 사용자의 인식과 실천,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3 골목길에 대한 법·제도적 변화

### 2.3.1 공공이 조성·관리하는 전통적 공공공간

공공공간의 소유주체로서 공(公)은 도시시설 정비 및 각종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해 공공공간을 정비해왔다. 과거에는 공공공간의 양적 확충에 집중하여 왔다면 오늘날에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성 방식과 유지·관리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다.

공공이 조성하는 전통적 공공공간은 도로, 공원, 광장 등이며, 그 중 골목길을 포함하는 도로 조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공공간·공공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골목길의 3차원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전면부 공간(준공공공간)은 건축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을 기반으로 조성되고 있다.

골목길 조성과 관련한 법령들을 검토한 결과,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도로(보도 및 차도)에 대한 공공의 소유 권한, 조성 책임, 유지·관리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공공간·공공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 등 자체 조례를 통해 도로(보도 및 차도) 조성의 방향과 원칙 제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간 개별건축물이 도로와 만나며 만들어내는 건물전면부 공간은 건축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의해 공공시설(도로)의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부분적 규제

를 받게 되는데,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 제46조 건축선 지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건축선 후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등에 의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적 환경으로서 도로의 조성과 관리의 주체는 공공이 되지만, 골목공간에 포함되는 개별건축물의 전면부 공간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조성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근거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 보전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조성 의무를 적시하고 공공사업으로 골목길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개발보다는 보전·정비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심관리정책에 기반하는 것으로 도심 내 골목공간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정비·관리 지침의 마련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표 4-1 골목길 조성 관련 법·제도 - 법정계획부분

구분	법정계획		법정계획		법정계획	
	도로조성(보도+차도)		건물전면부		가로환경(도로와 주변환경)	
기본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법 시행령·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서울시 조례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건축조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도시계획 조례
계획 및 사업 (명)	-	-	-	(경북공서측) 제1종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주거환경관리사업	(경북공서측) 제1종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공공사업

표 계속 골목길 조성 관련 법·제도 - 법정계획부분

구분	법정계획		법정계획		법정계획	
	도로조성(보도+차도)		건물전면부		가로환경(도로와 주변환경)	
시행 시점	-	-	-	-	2012년	2010년
조항 (항목)	제1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제2조 도로(차도· 보도) 및 도로시설물 대상	제12조 보행로, 주간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일반도로 등으로 조성	제43조 공개공지, 제46조 건축선 지정, 동법 제58조의 대지안 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건축선후퇴	16조 골목길 보전을 위한 건축물 배치 18, 19, 20조 통로로서 골목길의 개방성, 접근성, 기능성 확보 제시	[사업지침]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 가로환경개선 - 주민공동 이용시설 - 범죄예방시설	3,4,5,6,7조 : 도로(보도·차도· 골목길) 조성 원칙 및 정비기준 38,39,40조 :가로및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
적용 대상	공공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	공공/민간

232 지역 기반의 지자체,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는 골목길 관련 법·제도

이와 별도로 1990년대 이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골목가꾸기, 내집 주차장 갖기, 담장허물기 운동, 차없는 골목 만들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등 비법정 계획 및 사업들은 골목길을 비롯한 일상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골목공간의 조성 및 관리의 주체가 민간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통해서 지역 환경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중심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거주지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법적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경관사업의 주요 대상은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경관법 제16조 제1항)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이 조성하는 공공공간으로서의 골목길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조성하고 함께 가꾸어 나가는 가로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법·제도적 관점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골목길과 관련한 비법정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민간) 스스로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이용 주체로서 관리책임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표 4-2 골목길 조성 관련 법·제도 - 비법정계획 및 주민참여 프로세스

구분	비법정 계획				법정계획-가로환경	
기본법	-	-	-	-	경관법	
시행령·시행규칙	-	-	-	-	-	
행정규칙	-	-	-	-	-	
서울시 조례	-	-	-	-	경관조례/ 도시디자인조례	
계획 및 사업(명)	골목가꾸기	담장허물기 운동	차없는골목 만들기	안전한 통학로	경관계획	경관협정 (시범사업)
시행시점					2007	2007
조항 (항목 및 사례)	주민손으로 만드는 골목길 가꾸기 캠페인	-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 그린파킹	적치물과 주차차량으로 무질서했던 좁은 골목길을 환경개선 -내집 주차장 갖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염리동 소금길 (범죄예방환경 설계)	제3조(경관관리 의 기본원칙) 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경관관리 계획/지역주민 의 주도적 참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외부공간(주차, 담장, 부지경계) 개선 -보행로, 안전, 청결 등 가로환경 개선
적용대상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이 과정에서 지자체(서울시, 종로구)는 조례 단위에서 활용, 관리,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대응책들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핵심 공공공간인 가로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종로구 CCTV 통합안전센터 구축·운영규정), 지역 거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공공간의 부분적 사유화 방안(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지역 거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가로환경 정비 및 관리방안(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 제6조) 등이 있다. 이러한 대응에는 골목길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주민·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단편적인 해결책 제시라는 한계가 있으나, 점차 골목길 공간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표 4-3 지자체 차원의 골목길 관련 법·제도적 대응 방안

구분	자치 법규						
근거 법	국민건강증진법	도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차장법	자연재해대책법	-	폐기물관리법
조례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종로구 CCTV 통합안전센터 구축·운영규정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 제6조
계획 및 사업 (명)	-	-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계획	-	한옥마을 공동체 희망사업	뒷골목 깔꿈이 봉사단
수립 주체	구청장	시장	구청장	구청장	시장	주민	구청장
조항 (항목)	제1조(목적)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 보행권확보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적용 범위) 생활·공원 방법, 주차 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 관리, 시설물 관리, 어린이 안전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	제12조 주택가 도로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 주차장"이라고 하고 이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	제3조 제설·제빙 책임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 지정 제4조 제설·제빙법 위로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확대 지정	제9조 제1항 마을공동체사업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사업 지침] -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중심형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희망사업' 발굴 및 추진	제6조 종로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명시 [사업 지침] - 골목선정 :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취약골목을 대상(300m 내외) - 10명내외의 봉사단을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 2~3회 활동
적용 대상	공공부문	공공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특성	공공성 확보	공공성 확보	공공성 확보/ 주민민원 대응	주민민원 대응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확대

### 3 서촌 지역에서의 골목의 의미

#### 3.1 서촌 지역의 골목 현황

##### 3.1.1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는 골목

-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옛길

서촌의 모습을 구성하는, 혹은 물리적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골목길들이다. 골목길의 보존은 서촌의 옛 정취와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건축물이 많은 누상동, 청운동을 포함하여 간선도로와 접하는 많은 블록에서는 골목길들이 소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조직의 원형으로서 서촌 골목은 여전히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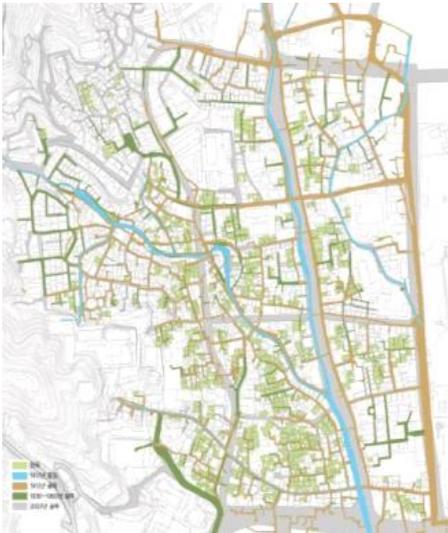


그림 4-2 서촌 지역의 과거 도시조직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2010, "서촌  
역사경관도시조직의 변화"



그림 4-3 체부동 골목

○ 건축물과 골목경관의 변화

일부도로의 신설 외에, 건축물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서촌에서는 동네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골목의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바닥 포장, 가로경관 등이 개별적으로 바뀌어 골목경관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여느 동네들과 다름없이 불법주차로 인한 골목공간 점유 등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3 골목을 점유하는 주차 차량 (체부동)



그림 4-4 골목경관의 변화

312 주거와 비주거의 공존이 나타나는 골목

○ 전통적 주거지 골목에서의 나타나는 일상

도심 내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서 서촌은 전통적 주거지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오랜 세월 유지된 커뮤니티들의 일상이 골목에서 관찰된다. 2014년의 서촌 골목은 여전히 사회적 교류의 장이다. 동네 할머니들이 의자를 내놓고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장이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내놓고 함께 모여 두는 기원이 되기도 한다.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 길이 되기도 하고, 세탁소 앞이나 미장원 앞에서는 이웃끼리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트럭에 싣고 온 과일을 좌판을 벌리고 파는 지점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얘기하는 모습이나, 화분을 내놓고 파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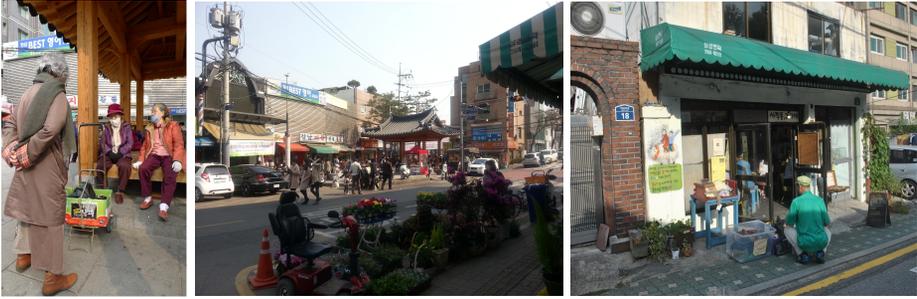


그림 4-5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주거지 골목(통인동, 필운동)

- 역사문화공간과 닿아있는 골목에서의 경험
 

박노수 가옥의 원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로구립미술관, 이상의 집터에 들어선 이상 기념관, 이상범 화가의 화실과 고택, 겸재 정선의 작품 속에 나타난 수성동 계곡, 문인들의 거점이었던 보안여관 등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문화공간으로서 골목길에서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다. 골목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역사문화공간은 주민뿐 아니라,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되면서 골목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 새로운 유입시설(attraction)이 들어서는 골목
 

동네로 유입되는 새로운 상업·문화시설들의 침투는 조용한 주거지를 위협하는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으나, 지역의 주요 골목에서 만나게 되는 카페, 공방, 갤러리 등은 기존의 골목 특성을 변화시키는 주요 인자들로 지역에 들어오는 방문객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활동들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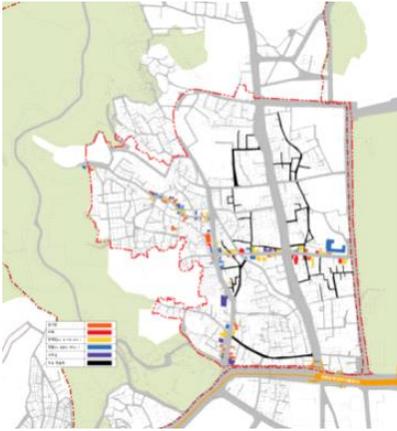


그림 4-6 서촌내 옛골목과 근생시설의 분포

### 3.2 활동의 매개체로서의 골목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서촌의 골목은 어떤 특정 시대나, 특정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주거와 비주거가 결합하여 만드는 일상으로서의 골목이다. 단순한 동네로서의 의미보다도, 단일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도 아닌, 복합적인 의미와 다양한 활동을 담는 배경으로서 서촌 골목에서는 그 장소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골목을 매개로 나타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일상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탐색은 서촌 골목이 가진 풍부한 의미의 장소성을 이해하게 되는 바탕이다.

#### 3.2.1 일상생활의 장 - 골목 청소, 화단·텃밭 가꾸기

동네를 아끼고,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서촌주거공간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011년부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온 주민모임으로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 가치의 고양을 목적<sup>70</sup>으로 한다.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연구회는 정기적으로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모여 골목청소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골목텃밭 조성을 위한 텃밭씨앗 배포, 골목텃밭 가꾸기 활동 등을 지역 내 단체들과 하고 있다.



그림 4-7 연구회의 골목청소 전경

자료 :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카페  
(<http://cafe.naver.com/sc110508/1957>)



그림 4-8 연구회의 골목텃밭 조성 현황

자료 : 참여사회 2013년 6월호(통권 199호)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8933131873/>)

매달 1회 실시되는 상징적인 골목청소와 텃밭가꾸기를 위한 기초적인 지원활동이지만 골목공간을 기반으로 골목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주체적 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3 2 2 이벤트의 장 - 골목전시, 프리마켓, 마을축제

서촌에서는 골목을 주제로 하는, 혹은 골목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2013년 주민·전문가 연구모임 몸-도시포럼에서 기획한 ‘흐르는 골목’전은 서촌 내 골목과 한옥을 배경으로 하는 전시기획으로서 실제로 골목 걷기를 통해 골목공간 곳곳을 돌아보게 하거나, 골목 안 한옥과 담벼락에 골목과 한옥에 대한 사진·그림·모형 등을 전시하는 등 골목에 대한 인식을 환원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림 4-9 한옥골목 답사·전시 등의 프로그램 그림 4-10 한옥 담장위 조형전시

매해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마을 축제는 필운대로에 면하는 주민과 상업시설들의 협조를 통해 골목과 가로의 전면이 잔치마당이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지역조직들이 주체가 되어 노래자랑, 장터, 지역아동을 위한 안전캠페인, 골목텃밭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역 단체 중 하나인 품애(네트워크 고리)의 경우에도 동네의 골목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교환하거나 사고파는 ‘시장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골목’을 재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만남을 견인하는 등 골목공간에서의 관계맺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내 갤러리·서점·상업시설 등이 진행하는 프리마켓은 골목공간의 일시적 활용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벤트로서 펼쳐지고 있다.



그림 4-11 필운대로에서 진행되는 마을축제



그림 4-12 통인시장 앞 정자 ‘시장해’ 프로젝트

### 동네 탐방 - 골목탐방

서촌의 오랜 골목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골목에서 일어나는 행태들은 달라지고 있다. 삼삼오오 카메라를 멘 청년들이 골목을 누비며 사진을 찍거나, 지도를 들고 선 탐방객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러한 방문객은 골목의 새로운 경험주체로서 골목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림 4-13 동네 탐방객



그림 4-14 탐방 루트(종로구)

### 경계를 허무는 노력

서촌 골목과 직접 맞닿은 몇몇의 공간들은 사적·공적 공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기 이상의 집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오픈되어 활용되는 것과 같이 공유공간으로서 골목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쉐어하우스 통의동집의 경우 1층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의 지역의 단체들은 골목에 맞닿은 1층 공간을 열어 주민들의 활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 설문개요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4년 4월 11, 12, 13일 3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자는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서촌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67부의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설문항목은 이용 및 관리 현황과 관련한 7개 항목, 공공성 척도의 차원인 소유·활용·관리·규제·조성에 관한 19개 항목, 사회적 관계 인식 정도와 관련한 15개 항목, 생활공간 활용의사 4개 항목, 전체적 만족도 2개 항목, 응답자 특성과 관련한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4 설문 항목

구분	항목	
이용 및 관리 현황	이용 빈도, 주 이용목적, 가꾸기 활동 참여의사, 현재관리 주체, 관리 운영 도움의 필요성, 관리운영 도움 적합 주체, 주차 위치	
공공성척도	조성	공공에 대한 개방감, 공공의 접근 용이, 타 공간과의 연계, 지역사회 중심지로서의 역할
	활용	나의 집기를 놓는 장소, 타인 활용에 대한 나의 허가, 주차장소로 활용
	유지관리	유지관리비용 지불의사, 유지관리 활동 참여, 환경미화 노력의사
규제	CCTV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 불법 적재물 단속, 소음발생으로부터 단속 외부인 출입 통제	
사회적 관계 인식	개인 중심 관계인식, 동네 중심 관계 인식, 공공 중심 관계인식	
생활공간 활용의사	생활공간 활용 의사, 기대효과	
전체적 만족도	만족도, 개선사항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 직업, 가구구성형태, 주거유형, 거주기간, 커뮤니티, 거주지, 골목길 너비	

## 4.2.1 응답자 특성

전체 배포된 67부 설문지 중 응답이 유효하지 않은 3부를 제외한 64부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4~5 참조) 남성 51.6%, 여성 48.4%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대는 40대(40.6%), 50대(15.6%), 20대 이하(15.6%) 순이었다. 설문 응답자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25%,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도 7.8%로 조사되었다.

51.6%(33명)의 주민들은 내 집 앞 골목길 너비를 4m 이하라고 답하였고, 37.5%(24명)의 주민들은 4~8m라고 응답하였다.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전체 응답자의 71.9%로 가장 많았고, 39.1%의 주민이 동네에서 참여하는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고, 응답자의 39%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5 응답자 특성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33	51.6
	여자	31	48.4
연령	20대 이하	10	15.6
	30대	2	3.1
	40대	26	40.6
	50대	10	15.6
	60대 이상	8	12.5
주거 유형	단독주택	16	25.0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30	46.9
	아파트	12	18.8

표 계속 응답자 특성

변수		빈도(명)	백분율(%)
주거 유형	한옥	5	7.8
	기타	1	1.6
집앞 골목길 너비	4m이하	33	51.6
	4~8m	24	37.5
	8m이상	4	6.3
	기타	1	1.6
거주 기간	1년미만	3	4.7
	1~2년미만	3	4.7
	2~5년미만	12	18.8
	5~10년미만	16	25.0
	10~20년미만	16	25.0
	20년이상	14	21.9
커뮤니티 형성여부	없다	39	60.9
	있다	25	39.1
응답자수 총합		64	100

4 2 2

### 이용 현황

대부분의 서촌 주민들은 골목길을 항상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85.9%). 골목길은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70.3%), 산책 (60.9%), 이웃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34.4%) 등의 순서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촌 지역의 경우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인왕산이 인접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남아있어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이 많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 이웃과의 친목도모 활동과 같은 과거의 사회적 활동들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42.2%는 자신의 집에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23.4%는 민간주차장, 15.6%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6.3%만이 내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촌의 공간구조 특성 상 주차를 하기 힘든 4m

미만 너비의 골목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6 이용 현황**

변수		빈도	백분율
이용 빈도	항상 이용하고 있다	55	85.9
	필요할 때 가끔씩 이용한다	8	12.5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1	1.6
주 활용목적 (복수응답)	통근/통학	45	70.3
	산책	39	60.9
	교류(친목도모)	22	34.4
	쓰레기 버리기	13	20.3
	주차	11	17.2
	휴식	9	14.1
	운동	8	12.5
	놀이	7	10.9
	작업(식재료말리기, 김장등)	4	6.3
	청소	4	6.3
	기타	1	1.6
	장사	0	0
	주차	내 집 주차장	27
민간주차장		15	23.4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10	15.6
내 집 앞 골목길		4	6.3
기타		6	9.4
공용 주차장		2	3.1
응답자수 총합		64	100

## 4.2.3 골목길에 대한 공공성 척도 분석

### 1) 공공성 척도의 요인분석

공공성 측정 지표들을 상관성이 높은 항목끼리 묶어 보다 적은 변수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자료는 배리맥스(varimax) 방식에 의해 회전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총 14개의 지표로 분석한 결과(표 4-7 참조)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표본적합도 KMO값이 0.707로써 통계적 기준인 0.7보다 높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p값이 0.000로서 유의수준  $\alpha \leq .01$ 에서도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 주어 본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추출된 요인으로 고정된 요인수 4개를 설정하였으며, 이들의 누적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약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은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다른 공공공간과 연계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접근이 쉬어야 한다와 같은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2는 소음 발생 요인을 단속해야 한다. 불법 적재물을 단속해야 한다.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와 같은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3은 나는 골목길 가꾸기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유지관리 비용을 낼 의사가 있다. 가꾸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한다와 같은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4는 이웃 집 앞 골목길에 주차를 해도 된다(역). 내 집 앞에 나의 집기를 놓는 것은 괜찮다. 다른 사람이 활용하려면 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외부인 출입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요인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최소 0.515로 나타났다.

**표 4-7 요인분석 결과표**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공의 접근용이	.835	.193	.114	.032
지역사회 중심지로서의 역할	.789	.209	.238	.056
공공에 대한 개방성	.691	.154	-.045	-.220
다른 공공공간과의 연계	.580	.172	-.144	-.552
CCTV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	.233	.848	.190	-.008
불법 적재물 단속	.249	.703	.295	-.269
소음발생으로부터 단속	.292	.673	.100	-.097

**표 계속 요인분석 결과표**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외부인 출입 통제	.159	-.077	.791	.116
유지관리 비용 지불의사	-.002	.273	.775	.038
유지관리 활동 참여의사	.035	.221	.764	-.057
환경미화 노력의사	.009	.039	-.093	.645
나의 집기 놓는 장소로 활용	-.186	-.195	.121	.636
타인활용에 대한 나의 허가	.026	-.295	.322	.623
주차장소로 활용	-.030	.464	-.233	.571
고유값	2.398	2.271	2.217	1.992
공통분산(%)	17.127	16.218	15.839	14.226
누적비율(%)	17.127	33.345	49.184	63.410
표본적합도(KMO)	0.707			
Bartlett 구형성검정치	280.614(0.000)			
Cronbach'sAlpha	0.775	0.770	0.789	0.515

요인별 점수를 산정한 결과, 전체적 점수가 3.44이고, 요인1(3.92) 요인 3(3.73) 요인2(3.62) 요인4(2.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1, 요인2, 요인3은 3.00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과 평균보다도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요인4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요인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 의사대로 내 집앞 골목길이나 타인의 골목길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고, 타인을 배척하거나 타인의 활용을 제어할 수도 없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해석해 보면, 골목길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공공적 가치와 정서적으로도 골목 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8 요인별 평균값**

(N=64)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총합
평균	3.92	3.63	3.74	2.47	3.44
표준편차	0.61	0.92	0.76	0.62	0.73

2) 커뮤니티 참여유무에 따른 공공성 척도정도

서촌은 커뮤니티가 많은 지역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거주자들 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T검증 결과, 요인1과 요인3에서 커뮤니티 참여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커뮤니티 참여가 있는 거주자들일수록 공공성에 대한 조성의사가 높고, 개인의 참여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p < 0.05$ 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제시되었다.

또한, 요인4를 보면 커뮤니티 참여 거주자가 그렇지 않은 거주자에 비해 활용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다.

해석해 보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거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거주민들보다 골목길 조성에 대한 공공성이 강하고 반면에 개인의 책임의식에 따른 유지관리의식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커뮤니티 참여에 따른 인식정도

구분	참여 커뮤니티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요인1	없다	36	3.81	0.67	.11185	-2.235	59.000	.029*
	있다	25	4.13	0.46	.09256			
요인2	없다	37	3.63	0.99	.16225	.074	56.659	.941
	있다	25	3.61	0.84	.16852			
요인3	없다	36	3.56	0.75	.12516	-2.110	52.332	.040*
	있다	25	3.97	0.74	.14772			
요인4	없다	36	2.44	0.70	.11674	-.528	57.228	.600
	있다	24	2.52	0.52	.10632			

4 2 4 사회적 관계 인식

골목길을 공유공간으로서 활용함에 있어 4가지 요인에 대한 주체의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마을공동체, 공공 3가지 주체로 분류하여 질

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목길의 주체는 종합적으로 ‘마을공동체’에 있다(3.62)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공공’(3.49), ‘나’(3.04)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는 관리, 규제 및 조성, 활용 순으로 주체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은 규제, 관리, 조성, 활용 순으로 나타났고, ‘나’는 관리, 조성, 규제,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마을공동체’와 ‘나’는 관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와 ‘공공’은 규제를 함에 있어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나 ‘마을공동체’, ‘공공’ 모두 활용 주체에 대해서는 3.00 이하의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0 사회적 관계에 따른 공공성에 대한 주체의식

구분	나		마을공동체		공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활용	2.31	0.87	2.71	1.05	2.64	1.20
관리	3.75	0.84	4.11	0.70	3.73	1.09
규제	2.84	0.98	3.84	0.84	3.89	0.76
조성	3.25	0.99	3.83	0.86	3.70	0.81
평균	3.04	0.92	3.62	0.86	3.49	0.97

#### 4.2.5 관리운영 특성

서촌 주민들은 골목길을 관리하는 주체는 동네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64.1%). 향후 골목길 가꾸기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78.1%(50명)으로 동네 주민이 골목길의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관리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참여를 원하는 활동의 종류는 청소(53.1%), 화단 가꾸기(40.6%)가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84.4%는 골목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가장 적합한 주체로는

공공영역 중에서도 행정(37.5%)과 동네 주민 모임(2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 주체 인식 설문조사와 동일선상에서 서촌 주민들은 골목길 관리 주체를 동네 주민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표 4-11 관리 활동 현황

변수		빈도	백분율(%)	
현재 골목길 관리 주체	동네 주민	41	64.1	
	공공(구청,동사무소)	14	21.9	
	개인	6	9.4	
	기타	3	4.7	
향후 활동 참여 의사	있다	50	78.1	
	없다	12	18.8	
	모르겠다	2	3.1	
참여 원하는 활동종류 (복수응답)	청소	34	53.1	
	화단 가꾸기	26	40.6	
	주차관리	5	7.8	
	기타	6	9.4	
	방법활동	3	4.7	
관리운영 도움필요성	필요하다	54	84.4	
	필요없다	7	10.9	
	모르겠다	3	4.7	
관리운영도움 적합주체 (복수응답)	공공	행정	24	37.5
		시설관리공단	1	1.6
		지원센터	2	3.1
	동네주민모임	19	29.7	
	제3섹터	시민단체	13	20.3
		사회적기업	1	1.6
		NGO	0	0
		민간기관협의체	0	0
	기타	1	1.6	

## 공유자원으로서의 활용의사 및 기대효과

골목길이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79.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공간 조성 사업시행에 대해서도 89.1%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참조).

골목길이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 생활 편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89, 응답자의 82.9%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가향상 영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60, 응답자의 65.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평균값이 3.90, 응답자의 82.9%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여 서촌 주민들은 골목길이 적극적인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골목길 공유자원으로서의 활용의사

변수	빈도	백분율(%)
생활공간 활용 동의 여부	예	79.7
	아니오	20.3
생활공간 조성 동의 여부	예	89.1
	아니오	11.0
합계	64	100

표 4-13 기대효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생활공간 활용 시 생활 편의 향상 여부	3.89	.78
생활공간 활용 시 지가향상 영향 여부	3.60	.88
생활공간 활용 시 삶의 질 향상 여부	3.90	.81

표 4-14 전체적 만족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적 만족도	3.35	0.77

5

## 결론

이 연구는 도심 내 주거지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공공공간으로서의 골목길이 통행이나 주차 등과 같은 필수적인 활동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골목길이 주거지역 내의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한 가능성을 공유공간의 개념을 적용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서촌의 골목길은 공공이 조성·관리하는 전통적 공공공간이 아니다. 조성 주체는 공공에서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소유 및 조성보다도 규제·활용·관리 부분에서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들을 자체 조례로서 강화하고 있었다. 활용의 관점에서도 공적 소유이기는 하지만 골목을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지역 거주민들에게 공간의 일시적 활용을 한정하는 등의 중간자적 입장에서의 대응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생활문화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유의 골목공간을 가지는 서촌 지역에서는 동네 주민은 물론이고, 그 동네에서의 문화적 활동을 경험하고 향유하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한정된 주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와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서촌의 골목공간이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개방된 공간으로서 골목공간이 활용하는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 그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공유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의 장으로서, 이벤트의 장으로서, 동네탐방의 장으로서, 경계를 지워가는

공간으로서의 서촌 골목은 그 의미를 가진다.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목길에 대한 인식 현황을 파악했을 때에도 골목길이 지속가능한 공유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촌 주민들은 현재 골목길 관리 주체가 동네 혹은 주민들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서촌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공간에 대한 유지관리 활동의 핵심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서촌 골목길의 경우 단순한 통로의 기능을 넘어서 산책과 이웃과의 친목도모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촌 골목길은 동네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기반으로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경관협정사업이나 커뮤니티 기반 도시재생사업들이 동네 공동체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강대진·박서방, 1960, 「화성영화사」, 한국영상자료원.
- 강준만, 2002,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인물과사상사
- 공윤경, 2014, “해방촌의 문화 변화와 공간의 지속가능성”, 「한국사지리지리학회지」, 24권 2호.
- 구자훈·김슬옹·노정민, 2011, “서울시 골목길 담장허물기의 여부에 따른 주민의 사회적 활동의 양적 차이 비교 분석”, 「도시설계」, 12(4): 5~20.
- 구자훈·박청호·김재하, 2011, “한옥밀집지역에서의 지역인지 및 영역성 인식에 관한 거주자와 방문자 간 차이 분석”, 「도시설계」, 12(5): 47~58.
- 권태구·성낙일, 2014,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 실증분석”, 「經濟分析」, 제20권 제2호.
- 기호철·서민·배재훈·신동훈, 2013, “조선시대 한성부 사대문 안 토양의 오염 실태와 그 원인”,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Vol.56 No.-.
- 길모어 저, 신복룡 역, 1999, 「서울 풍물지 한말 외국인기록17」, 집문당, P.102.
- 김광중, 2003, 「지표로 본 서울변천」, P.78.
- 김범식·최봉, 2013, 「서울시 영세소매업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 김선정, 2005 “옛 그림속의 경기도” 「기전문화예술총서15」, 경기문화재단, PP.222-274
- 김영수, 2004, “도시 한옥 주거지의 도시조직”, 「서울학연구」 제22호.
- 김종인·신용재, 1990, “주택지 골목의 유형적 이해를 위한 접근”, 「대한건축학논문집」, Vol.6 No.6.
- 김혜원, 2005, “국내 소매업 동향과 성장전망”, 産銀調査月報.
- 김홍중, 2008, “골목길 풍경과 노스텔지어”, 「경제와 사회」, 139~168.
- 김홍중, 2008, “골목길 풍경과 노스텔지어”, 「경제와 사회」, Vol.- No.- [2008], 139-168
- 대한주택공사, 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 박소영, 2004, “북촌도시한옥주거지의 골목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
- 박진아, 2012, “시장경제 속 소형 상업의 위협, 도시계획적 해법은 없는가”,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3권 제5호 통권 제53호.
- 비숍 저, 신복룡 역, 2000, 「1894~1897, I.B.비숍,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집문당.
- 서민호·김세용, 2012. “도시 적주성(適住性) 논의를 위한 다의적 개념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8(04): 211~222.

서용구·김숙경, 2012, “국제 비교를 통한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유통연구」, 제17권 제5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서울, 20세기 : 100년의 사진기록」.

서울역사박물관, 2011, 서촌 역사경관도시조직의 변화.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보는 서울 변천(2010년 개정판)」.

서울특별시, 1965, 「서울시도시계획서」.

서울특별시, 2010, 경북공서측제1종지구단위계획, 「인문역사환경 및 한옥조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10, 경북공서측제1종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 「다시 일어서는 서울」

손은하, 2012, “공유 공간과 커뮤니티”, 「동북아 문화연구」:61~79.

손정목, 1977, 「조선시대도시사회연구」, 서울, 일조각.

송인호, 1990, “도시형 한옥의 유형 연구 1930년~1960년의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시가지건축취체규칙(1913년, 조선총독부령 제11호)

신용재·김종인, 1991, “골목공간의 인식성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7(2): 113~119.

신중진·정지혜, 2008, “커뮤니티를 고려한 녹색주차마을사업의 계획기법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1):193~202.

아손 저, 김상열 역, 2005,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책과 함께.

안젤 저, 김진우 역, 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푸른솔.

안젤 저, 김진우역, 2003,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푸른솔.

어효선 글, 한영수 사진, 1994, 「내가 자란 서울 : 1930년대 서울 살림 옛보기」, 대원사.

엘리자베스 키스, 엘스팻 K. 로버트슨 스콧 저, 송영달 역, 2006, 「영국화가 엘리자베스키스의 코리아 1920~ 1940」, 책과 함께.

염철호·심경미·조준배, 2008,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윌리엄 화이트, 1988, “City: Rediscovering the Center”

유봉희, 2014, “ ‘골목의 자식들’이었을 우리들의 이야기”, 「비평의 플랫폼」, 3·4월호, 38쪽.

은난순, 2005, “근대화시기 주거공간을 통해 본 아동관과 아동공간의 고찰 - 1920년대~1960년대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3 No.5.

- 이경한, 2012, 「일상에서 장소를 만나다」, 푸른길.
- 이두용, 1978, 경찰관, 한국영상자료원
- 이상봉, 2011, “대안적 공공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모색-지역적 공공성과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9(1), 23~45.
- 이성환, 2006, “소비자 점포선택요인의 실증적 비교연구”, 「유통경영학회지」, 제9권 제3호 통권 제18호.
- 이신철, 2000, “월남인 마을 해방촌(용산2가동) 연구 : 공동체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4.
- 이정만, 2012, 「지리학 탐색」, 한울아카데미
- 이정욱, 2011, “갑오개혁 이후 한성 도로정비사업과 府民의 반응”, 「향토 서울」, 제79호.
- 이정호·김주현·김상희, 2012, “현대적 공공성 측면에서 본 공공가로 사업 사례 분석 : 대구광역시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8(11): 207~218.
- 이해경, 2007, “도시적 맥락에서 본 전통한옥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 18, No. 4, 2007
- 이현재 외, 2013, “이웃 가계에서 유대 전략이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 의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제16권 제3호 통권54호.
- 이형표, 1961, 「서울의 지붕 밑」, 신필름·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임창복, 1991, “도시형 한옥과 도시주거문화”, 「建築」, Vol.35 No.2, 57-60
- 임희지, 2013, 「서촌지역 정책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 장덕현, 2006, “일상을 통해 본 부산지역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세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
- 장태현·박종덕, 2002, “커뮤니티 형성요소로서 마을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산업과학연구」, Vol.19 No.2, 75-82
- 전남일·양세화·홍형욱, 「한국주거의 미시사」, 돌베개, P.207.
- 전상인, 2014, 「편의점 사회학」, 민음사.
- 정근표, 2009, “구멍가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행복을 파는 곳”, 쌤터사.
- 정재용·박훈, 2006, “서울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도심 단독주택 사례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22 No.2, 163-174
- 정재용·박훈, 2006, “도심형 단독주택지 블록 및 필지의 개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도시조직 특성과 환경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7(4): 19~32.
- 정지아, 2010, “사라져가는 점방의 풍경”, 웹집 인권.
- 정희선, 2012, “한국의 근,현대 구상회화에 나타난 재현경관의 탐색 2: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반영된

- 근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5 No.2.
- 제인 제이콥스 저, 유강은 역,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 제인 제이콥스 저, 유강은역,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 주택도시연구원, 1995, 「공동주택 생산기술의 변천에 관한 연구」
- 하재명·김묘정, 2005,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 단독주택지 가로공간 계획”,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1(4): 159~166.
- 하재명·안광희, 1989, “주거지내 도로망유형에 따른 거주자의 근린의식에 관한 연구:대구시 두류2동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5: 37~46.
- 한국지리연구회, 1993,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p76
-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태정호 역, 2008, 「인간의 조건」, 서울:한길사.
- 황익주, 2005, “골목길과 광장 및 공원 : 도시에서의 우리 동네 형성에 관한 인류학적 에세이”, 「건축」, 49(1): 69~76.
- 황익주, 2005, “골목길과 광장 및 공원: 도시에서의 ‘우리 동네’ 형성에 관한 인류학적 에세이”, 「대한건축학회」, Vol.49 No.1 ,69-76.
- Baron, S., K. Harris, D. Leaver, and B.M. Oldfield, 2001, “Beyond convenience: The future for independent food and grocery retailers in the UK”, **International Review of Retail, Distribution & Consumer Research** 11, no. 4: 395~414.
- Carmona, M., 2010, “Contemporary Public Space, Part Two: Classification”, **Journal of Urban Design**, 15(2): 157~173.
- Clarke, Ian and Banga, Sunil, 2010 “The economic and social role of small stores: A review of UK evidence”,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tail, Distribution and Consumer Research**, 20: 2, 187~215.
- Everts, Jonathan, 2010, “Consuming and living the corner shop: belonging, remembering, socialising”, **Social & Cultural Geography**, 11: 8, 847~863.
- Furey, S., H. Farley, and C. Strugnell, 2002, “An investigation into the availability and economic accessibility of food items in rural and urban areas of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6, no. 4: 313~321.
- Gehl, J., 1971, **Life between Buildings - Using Public Spac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Gehl, Jan and Birgitte, So, 2014, **How to Study Public Life**, Island Press, p.16.
- Hare, C., K. Kirk, and T. Lang, 2001, “The food shopping experience of older consumers in Scotland: Critical inc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29, no. 1: 25.

Langstraat, Florian and Rianne Van Melik, 2013, "Challenging the 'End of Public Space':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ness in British and Dutch Urban Spaces", **Journal of Urban Design**, 18(3): 429~448.

Németh, J. and Schmidt, S., 2011,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 modeling and measuring publicness", **Environment and Planning-Part B**, 38(1): 5.

Newman, O., 1972, **Defensible Space**, Macmillan Pub.

Paddison, A. and E. Calderwood, 2007, "Rural retailing: A sector in dec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35, no. 2: 136~155.

Project for public space, 2005, **How to turn a place around : A handbook for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 New York.

Seymoura, Mona, Jennifer Wolcha, Kim D. Reynoldsb, and Hilary Bradburya, 2010, "Resident perceptions of urban alleys and alley greening", **Applied Geography**, 30(3): 380~393.

Smith, A. and L. Sparks. 2000. "The independent small shop in Scotland: A discussion of roles and problems", **Scottish Geographical Journal**, 116, no. 1: 41~48.

Van Melik, Rianne, Irina Van Aalst, and Jan Van Weesep, 2007, "Fear and Fantasy in the Public Domain: The Development of Secured and Themed Urban Space", **Journal of Urban Design**, 12(1): 25~42.

Varna, G. and Tiesdell, S., 2010. "Assessing the publicness of public space: The star model of publicness", **Journal of Urban Design**, 15(4): 575~598.

Whyte, W. H.,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Washington, The Conservation Foundation.

<a href="http://www.seoul.go.kr/">http://www.seoul.go.kr/</a>	서울시청
<a href="http://www.law.go.kr/main.html">http://www.law.go.kr/main.html</a>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cafe.naver.com/sc110508/2046">http://cafe.naver.com/sc110508/2046</a>	서촌주거공간연구회
<a href="http://www.seochonlife.net/">http://www.seochonlife.net/</a>	서촌라이프 웹진

서울연 2014-CR-08

골목길에서의 외부활동과 사회적 관계 : 골목화단과 골목주차

발행인 김수현

발행일 2014년 9월 3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비매품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